# 靑陽의 民謠

임동권 · 정형호 · 임장혁　共編



靑陽文化院

## ▣ 편자 소개


**임동권** 충남 청양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저서『한국세시풍속연구』외 다수

**정형호** 충북 보은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저서『양주별산대놀이』외 다수

**임장혁** 서울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부교수
저서『기우제의 비교민속학적 연구』외 다수

# 靑陽의 民謠

임동권 · 정형호 · 임장혁 共編



靑陽文化院

# 발 간 사



청양문화원장 정재권

서구의 문물이 밀려 와서 조상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통문화가 나날이 변하거나 소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조상의 마음과 생활이 담겨 있는 문화가 더 소멸되기 전에 내 고장의 민요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후세에 전해야 할 사명감에서 청양의 민요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민요란 마음 내키는 대로 부르는 노래이다. 모심으면서 노래하고, 김매면서 노래하고, 산에서 나무하면서 노래하고, 빨래하고 베 짜면서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자연을 노래하고, 놀이하면서 노래하는 등 민요는 세상의 만상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노래하였으니 민요에는 향토와 민족의 정서가 응결되어 있어 민요를 우리민족의 노래라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청양의 자연환경은 산과 들과 하천을 고루 갖추고 있다. 칠갑산을 한 복판을 두고 논과 밭과 들이 있고 지천이 흐르고 있어 다양한 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다양한 생활은 다양한 노래를 가지게 된다. 우리 청양은 지리적 여건으로 현대문명의 변화에 적응이 늦은 탓으로 오히려 고맙게도 순박하고 소박한 노래들이 전승되었다고 본다.

아쉬운 것은 수집 기록하는 작업이 이미 늦은 점과 학교교육과 방송에서의 유행가 등에 의해서 이미 소멸되었거나 변질된 것도 있을 것이어서 애석하다.

우리의 옛 조상들은 달 밝은 밤이면 남녀가 모여 소리하고 춤추고 즐겁게 놀았으며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심성을 읊은 다양한 노래에 흥취하며 하루 종일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청양의 우리 조상들도 그랬을 것이다.

그동안 칠갑문화를 비롯하여 여러 간행물에서 민요를 부분적으로 소개한 바 있으나 집대성하지 못하였기에, 이번에는 기존에 발표된 것을 수용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단행본으로 엮어 내게 되었다.

이 어려운 작업을 이번에도 자료수집과 고증을 거쳐 책으로 발간하기까지는 이 고장 출신 임동권 박사님과 중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수고를 해주셨다. 임동권 박사님의 고향 사랑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은 향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물론이요, 우리 청양군내 여러 계층에서 많이 읽히고 후대에까지 전승되었으면 감사하겠다.

# 서 문

임 동 권

청양은 이름 그대로 늘 푸르르고 산에 수목이 우겨져 있으니 물이 맑을 뿐 아니라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고 생기 왕성한 곳이다. 이렇듯 자연의 혜택을 받아 사람 또한 맑고 정한 마음으로 사는 무릉도원과도 같은 곳이다. 그래서 조상들이 남겨 놓은 문화유산 또한 순수하고 풍부하다.

산수 맑고 선조들이 남겨 놓은 향토문화유산이 현대의 물결에 밀려 사라지는 것을 애석히 여겨 청양문화원에서는 이것을 수집·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려는 장한 작업을 수년째 기획하여 조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작업을 문화원으로부터 위촉받아 금년에는 여기에 『청양의 민요』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민요는 그 민족의 노래이며, 향토의 노래이다. 우리는 같은 풍토 같은 환경에서 사는 동안 같은 공감과 정서를 가지게 되어 민족성 향토성을 낳게 된다. 여기에서 민족문화, 향토문화가 형성된다.

민요는 시심(詩心)을 갈고 닦아 훈련 된 지배자나 식자의 노래가 아니라, "낫 놓고 ㄱ자도 모르는" 농군이나 촌부(村婦)의 노래 즉 서민의 노래이다.

서민들은 마음을 수식하거나 위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거침없이 읊어 낸다. 여기에서 민요는 순수하고 소박한 점이 인정되고 평가된다. 그래서 민요를 가리켜 하늘의 소리[天聲], 자연의 소리라 부르고 있다. 민요를 듣고 있으면, 그 향토와 주민들의 생활과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민요는 향토문화연구에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청양의 민요는 그 동안 산발적으로 수집된 일이 있다. 1950년대에 수집된 자료는 『한국민요집』에 수록된 일이 있고, 『칠갑문화』, 『청양의 향기』, 『청양의 구비문학』 등에서 민요가 소개된 일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행본으로 집대성하기 위하여 이제까지의 성과를 모두 수용하고 여기에 이번에 새로 수집한 자료를 한데 묶기로 한다.

지금 민요 수집은 사실은 때가 늦었다. 서구문물이 우리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놓았고, 농경작업도 기계화되어 산업사회로 들어가기 전에 수집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사람들의 의식은 현대화 물결에 편승하였고,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집중 이동하여 농촌의 전통문화는 시들어 이제는 시골에 가도 민요는 듣기 어렵고 방송에서 전달된 가요곡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몇 분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존해 있어 민요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요 수집 작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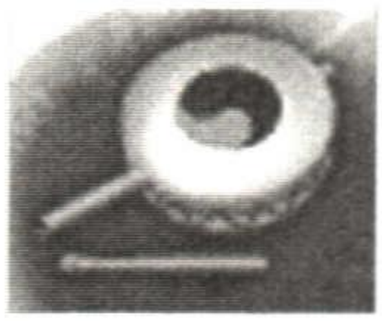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 수집하지 않으면 조상이 남겨준 서민 시가문학은 모두 잃고 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양문화원의 향토문화수집 보존사업은 발상이 매우 좋았다.

조 사 자　임동권(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형호(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임장혁(중앙대학교 부교수)

조사보조자　이정은(중앙대학교 민속학과 4학년)
성시우(중앙대학교 민속학과 4학년)
김진영(중앙대학교 민속학과 3학년)
김지연(중앙대학교 민속학과 3학년)
임희영(중앙대학교 민속학과 2학년)
최주희(중앙대학교 민속학과 2학년)



# 목 차




민요란 무엇인가__ 11

1. 동 요 • • • 15

2. 勞動謠 • • • 51

3. 婦 謠 • • • 75

4. 민간신앙요 • • • 95

5. 타 령 • • • 155

6. 情 謠 • • • 201

❋ 조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205



# 민요란 무엇인가?

민요는 노래를 만든 창작자를 알 수는 없으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불러지며 오랜 세월 속에 전승되어 왔다. 소박한 민중의 삶을 반영한 가사이기에 국민성이나 민족성이 잘 반영되어 구전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불려 왔다. 특정한 상류층만이 향유하여 부르던 노래가 아니고 일반 백성이 생활상을 주제로 불러 왔기에 어민이나 농민이나 자신의 생업을 반영하여 불렀다. 또한 민요는 부르는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낮에는 일손에 따라 밤에는 손자를 위한 자장가나 베틀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 집단에서 집단으로, 또는 개인에서 개인으로 전승되기도 한다.

민요는 전파되고 전승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모가 없어지고 여러 사람의 공감에 맞도록 변하고 개작되어 차차 완성되어 왔다. 우리 민요는 내용에 있어 소박하고 유교성이 강하게 나타나 있으며 해학과 낙천성이 잠겨 있다. 학식을 갖추지 못한 서민 농군들의 노래인 만큼 높은 교양이나 기교를 보이지 않는다.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즉흥적이고 반사적으로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 놓았으니 여기에 민요의 순수하고 깊은 맛이 있다. 유교는 오랫동안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이

며 생활철학이기도 하다. 삼강오륜과 충효는 인륜의 근본으로 여겨왔고 직업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믿어져왔기에 민요에도 그러한 일면이 농후하게 반영되어 있다. 농민들은 들에서 일하면서 부른 모심기노래에서도 충효를 강조 하였으니 뜨거운 태양열 아래에서 농사지어 「나라에 받치고 부모를 보양하고 그런 연후에 처자를 거두자」고 하였다. 농민들이 힘든 농사일의 힘을 덜기위해서 민요를 부른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국가와 가족이라는 뚜렷한 유교적 서열과 윤리의식이 나타나 있다.

한국 민요는 형식적으로는 4·4조를 위주로 하고 3조가 첨가 되었으며 음의 반복과 후렴을 흔히 사용했다. 4·4조를 택한 것은 한국인의 음감에 의한 것이며 반복 음은 여성의 민요와 아동의 동요에 있어서 심하다. 그러나 후렴을 주로 성인 남성들의 민요, 특히 타령에 있어서 관용이 많다.

조선시대와 같이 엄격한 부계중심사회에서 여성들은 억압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고된 시집살이 노래에 잘 반영되어 있다. 억눌린 사회에서 마음의 고통을 억제하며 사는 주부들은 절실하고 애절한 노래를 부르며 시름을 달래 왔다. 시어머니와 갈등이나 남편의 억압 속에서 단순히 상상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맺힌 한을 스스로 노래로 달래며 불렀기에 문학성이 짙게 배어있다. 주부들의 부르던 민요를 읽으면 우리의 어머님이 떠오르며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 지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한국 민요는 약 570여 종의 노래가 있고 그 중 민요가 340종 동요가 230종이 된다. 민요는 주로 성인들이 부르고 동요는 아동들이 노래로서 때로는 연령이나 남녀 구분 없이 부르는 경우도 있다.

동요는 아동들의 노래이기에 발랄하고 순수하여 생활주변의 일 또

는 동·식물이나 자연과 함께 놀고 웃기고 즐기는 동심의 세계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또한 동요는 대부분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배워 부르거나 친구들과 함께 놀며 저절로 익숙해져 부르는 노래는 서정적이다. 또한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서 배워 부르는 노래는 생활관이나 교훈적인 내용이 특징이 있다.

민요는 성인들의 생활을 노래하였으니 논밭에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마을달래기도 했고,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신에 의지하여 신앙심을 노래로 표현하고, 거침없이 인생의 애환이나 세상사와 생활주변의 일을 목 놓아 부른 타령들이 있다.

이 책에서는 자료를 위주로 해서 동요·노동요·부요·민간신앙요·타령·정요로 분류했다.

민요는 전파정도와 세련된 정도에 따라 토속민요와 통속민요로 구분한다. 토속민요는 한정된 지역에 불려지는 민요로서 사설이나 가락이 소박하고 향토적이다. 예를 들면 상여소리나 김메기 모내기소리등과 같은 소리이다. 통속민요는 직업적인 소리꾼에 의해 불려지기에 세련되고 널리 간파된 민요이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육자배기나 수심가 창부타령등과 같은 노래이다.

청양민요에 칠갑산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청양군내의 중심에 자리한 명산으로 칠갑산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군민들은 칠갑산 자락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우러러 신앙하고 의지하고 있으므로 영산이란 인식이 있기 때문이며 청양의 향토성을 보여준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 일본에 갔더니
이 이등방문이 죽이고
삼 삼각산에 올라가
사 사방을 둘러보니
오 오토바이 타고
육 육혈포를 가지고
칠 칠갑산에 올라가
팔 팔만군사 거느리고
구 구두발로 찼더니
십 십리가서 떨어졌네

이 밖에도 물래노래에 「칠갑산 고리싸리」·상여소리 2에 「청양의 명산은 칠갑산」 등이 있다. 이처럼 민요는 향토의 산천과 정서에 맞게 변조되는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향토성이라 할 수 있으니 청양에 전승되는 민요에서 자연환경과 주민의 정서를 찾을 수 있다.



# 1. 동 요

전래동요는 뚜렷한 작자나 시창자(始唱者)가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서 구전되는 동안에 어린이들의 마음에 맞도록 다듬어지고 형식적인 틀도 어느 정도 갖추어서 전승되는 가요이다. 전래동요의 특성을 들면 첫째, 리듬을 그 생명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전통적인 다른 가요와 같이 4·4 내지 3·4조의 기본 운율(韻律)을 지니면서도 특히 4·4조 리듬에 더욱 철저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 리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전래동요는 같은 내용의 시행(詩行)을 되풀이하여 반복되므로 대부분 1행은 2행으로 2행은 4행으로 발전해간다.

둘째, 전래동요에는 귀천이나 계급의식이 없다. 어린이들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노래한다. 그들의 주변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 풀이나 짐승이나 새, 그리고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소재를 아무런 비판이나 가식이 없이 순수하고 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셋째, 진(眞)·선(善)·미(美)를 이상으로 삼는다. 희로애락은 있으나 증오나 추악이 없이 표현하는 동심의 세계 그대로 이다. 이와 같이

전래동요는 다른 구비적(口碑的)인 가요와 비슷한 형식을 갖춘 반면에 그 내용은 상이한 것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이 고장에서 저 고장으로 전해지면서 이어져 내려왔다.

동요는 어른에게도 자신의 옛 기억을 되살리고 본래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노래의 고향인 것이다. 그러기에 여러 민요 중에서도 순수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 꾀꼬리謠

물레꼬리 조도령
코뿌리 뾰 - 족.

### 꾀꼬리謠 2

꾀꼬라 어데갔지
뒷동산에 갔더라
무엇하러 갔지
씨름하러 갔더라
어떻게 하지
요렇게 하더라

### 꾀꼬리謠 3

담배밭에 저도령
스못티고개로 애~애
이근래 근래 복받게하고
물레꼬리 저도령

## 꿩謠

꿩꿩 꿩서방
아들낳고 딸낳고
무엇먹고 사나
앞밭에가 콩한되
뒷밭에 팥찾되
그럭저럭 먹고살았지.

## 솔개謠 1

암닭줄께
뺑-뺑 돌아라.
수닭줄게
뺑-뺑 돌아라.

## 솔개謠 2

솔개야 솔개야
쥐잡아줏게 돌아라
닭잡아줏게 돌아라

## 잠자리謠 1

맥이동동 파리동동
가물치동동 송사리동동
먼데가면 똥물먹고
이리오면 단물먹고

맥이동동 파리동동
가물치동동 송사리동동.

## 잠자리謠 2

잠자라 꽁꽁
앉은자리 앉아라
먼데먼데가면
똥물먹고 죽는다

메기동동 파리동동
메기동동 파리동동
가물치동동 송사리동동
메기동동 파리동동
가물치동동 송사리동동

## 잠자리요謠 3

잠자라 꽁꽁
잠자라 꽁꽁
먼다먼디 가면
똥물먹고 죽느니라
이리이리 오면 나느니라

## 달팽이謠

달팽아 달팽아
너의집이 불났다.
소시랑 갖고 나와
뚤레뚤레 해봐라.

## 청개구리謠 1

맹꽁맹꽁
맹꽁이가 왜 우는가
지어머니 시체를
모래사장에 묻어서
비오면 떠나려 갈까봐
맹꽁맹꽁 그렇지

## 메뚜기謠

방애야 방애야
에헤이떨꺽 방애야
아침먹이 찧여라
아침먹이 찧였다
점심먹이 찧여라
점심먹이 찧였다
저녁먹이 찧여라
저녁먹이 찧는다.
에헤이덜걱 쿵창
※메뚜기 다리를 쥐고

## 땅개비謠 1

땅개비야 땅개비야
아침거리 찧어라
저녁거리 찧어라
우리아씨 흰덕방아
네가대신 찧어라

앞집처녀 보리방아
네가대신 찧어라

## 땅개비謠 2

아침거리 찌어라
저녁거리 찌어라
보리방아 찌어라
쌀방아 찌어라

## 땅개비謠 3

아침먹이 찧어라
저녁먹이 찧어라.
우리댁아씨 흰떡방아
네가대신 찧어라.
건너집처녀 보리방아
네가대신 찧어라.

## 무당새謠

새야새야 무당새야
안시성에 앉지마라.
샛바람에 부는것이
눈동자를 가릴러라.
친정살이 좋다더니
고초당초 다맵더라.
비단배필 짜내다가
남의존일 한단말가.

## 대문謠

저기저기 저대문
정상도 황해대문
그대문좀 따주게.
일개리부터 못따주게.
그러거니 못따주게.
적으나말고 들어가게.

## 數　謠

일 일본에 갔더니,
이 이등박문이죽이고,
삼 삼각산에 올라가,
사 사방을 둘러보니,
오 오토바이 타고,
육 육혈포를 가지고,
칠 칠갑산에 올라가,
팔 팔만군사를 거느리고,
구 구두발로 찼더니,
십 십리가 떨어졌네.

## 게謠 1

게아잡아 게아잡아
밥해줄께 얼른놓아라.
※게에게 손을 물리면

## 게謠 2

게가 나온다 잇밥하여라.
거랑방이 온다 좃밥하여라.
※게거품 나는 것을 보고서

## 가제謠

가제야 가제야 밥지어라.
나그네 왔다 밥지어라.

## 馬　謠

말아말아 배꼽치다
내일모레 콩나까줄라.

## 擦根謠 1

깜박깜박 책책
들넘어가 책책
올림바퀴 말려라.
딸-딸 말려라.

## 擦根謠 2

오이를 내일라.
참외를 내일라.

## 擦根謠 3

외내나라
참내 내나라.

## 달맞이 노래[1)]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저기 저 달고개
계수 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 달노래 1

달아달아 밝은달아
낮이면 어디갔다
밤이며 돌아오니
달아달아 밝은달아
너의집이 어디메냐
내일모레 놀러가게

---

1) 정일순(여, 74세, 청양군 남양면 온양리)

## 달노래 2

달아달아 달아달아
아이아이 허궁춘절에
둥덩실높이 떠있고나
에어히 둥긔덩실
밝은달아 너구나구
담뱃대 문채로 거닐어보잔다

## 달노래 3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든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옥도끼로 찍어내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천년만년 살고지고.

## 놀림謠

이거지 저거지
진짜거지 땅거지

## 곰보노래 1

헐직백이 찍지백이
대추나무 끌방맹이
콕콕 처 박아라

## 곰보노래 2

얽음백이 찌님백이
장판에 호도끽지

## 姓　謠

독갑아 뭐
어데가니 저기
뭣하러 씨름하러
어떻게 요렇게
※金字를 쓰면서 노래함

## 바람謠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대초야 대초야 떨어져라.
애들아 애들아 주서라.
어른아 어른아 빼서라.
애들아 애들아 울어라.

## 물　謠

꾸정물은 나가고,
맬강물은 들오고.

## 缺齒謠 1

앞이빠진 강강수야
우물가에 가지마라.
붕어새끼 놀랜다.
앞이빠진 노장군
삼년묵은 떡갚내라.

## 缺齒謠 2

앞니빠진 남대문
윗니빠진 허궁다리
또랑물로 가지마라
가재보고 놀란다
바다물로 가지마라
거북보고 띠리라

## 성내쟁이 1

성났다 병났다.
호박국을 끓여라.
연지문을 열어라.
너먹자고 끓였니.
내먹자고 끓였지.

## 성내쟁이 2

골냈다 성냈다
골도나고 성도났다
장지문을 열어라
김치국을 끓여라
김치국이 싫다거든 호박국을 주어라
저주자고 끓였나
나먹자고 끓였지

## 댕기 노래

댕기댕기 갑사댕기
우리아빠 떠온댕기
우리집의 사랑댕기
바람살랑 예쁜댕기
이웃총각 애탄댕기
나는나는 좋은댕기

## 방귀謠 1

방구나온다 진구나온다
종재기대라 적다
접시대라 적다
사발대라 적다
투가리대라 적다
양푼대라 적다
꽝주리대라 뽕!

## 방귀謠 2

방구방구 나온다.
사발대라 작다.
투가리대라 작다.
꽝우리대라 꼭맞다.
꽝!

## 우는아이 달래는 노래

우둥백이 짜동백이
똥두깐에 구덕할미
지름한종이 꿔주쇼.

## 큰애기謠

이년아 저년아
호으로 호년아
인두로 지즐년아
똥독에 빠질년아
대꼭지로 건질년아
함박으로 건질년아.

## 兩班謠

양반양반 두양반
양반양반 스나반.

## 뚱뚱이謠

뚱뚱이 뚱뚱이
호박에다 말박은놈.

### 誹謗謠 1

한푼주께 놀아라.

두푼주께 놀아라.

### 誹謗謠 2

아-니는 청산보안이

두눈 깔아니

옆구리 좁아니

바위 난간이

산에 골아니

물에 매사니

### 실꾸리謠

명지꾸리 감자. 실꾸리 감자.

명지구리 감자. 실꾸리 감자.

※손을 마주잡고

### 聲戱謠 1

나도나도 전라도, 평양감사 흘라도.

앉은고리는 먹고리, 뛰는고리는 개고리.

나는 고리는 꾀꼬리, 달린고리는 문꼬리.

### 聲戱謠 2

앉은고리는 먹고리

뛰는고리는 개고리

나는고리는 꾀꼬리

달린고리는 문꼬리

## 聲戱謠 3

나도나도 절라도
평양감사 흘라도
달강달강

달강달강 우리아기
서울길에 가다가
밤한개를 줏었네
살강밑에다 묻었더니
머리검은 시앙쥐가
들랑날랑 다까먹고
벌게통이 하나 남았네
옹솥에다 삶을가
가마솥에다 삶을가
가마솥에다 삶아서
주걱으로 건질가
저깔로 건질가
대꼭지로 건질가
조랭이로 건질가
조랭이로 건져서
껍질랑은 할머니 주고
번덱일랑 어머니 주고
알맹일랑 너하고 나하고
둘이 먹자

## 아이 어루는 노래 1

떵기떵기 떵산아
오라가는 학선아.
내려가는 기력아,
땅개비란 놈이
팔한섬을 건너가서
앵무섬을 건너가서
하두 무거워
자빠졌구나.

## 아이 어루는 노래 2

덩기덩기 덩산아
날러가는 학산아
구름밑에 학산아
금을주니 너를사랴
옥을주니 너를사랴
금자둥이냐 옥자둥이냐
보배둥이냐
쥐면 꺼질까
불면 나를까

## 술래잡기謠

솔개미 떴다
병아리 숨어라
에미날개 밑에
꼭꼭 숨어라.
나래미가 나왔다.

## 두껍놀이謠

소가 밟아도 딴딴
까치가 밟아도 딴딴
무너질라 생각말고
잘도잘도 지어라.

## 數　謠

하나붙어 하늘을 가르키고
둘이또한 돌땅을 뜻함이라.
셋으로서 씨앗을 심으면서
넷째번에 나는짝 새롭도다.
다섯째로 다버린 뒤에야만
여섯이라 이어진 줄기 끝에
일곱이라 이루어지는 꽃봉오리
여덟째로 열리어 꽃이피어
아홉이라 아물어 합한뒤에
열이맺어 열매가 열리나니.

## 달풀이

정월에 점치고
이월에 이앓고
삼월에 삼스고
사월에 삭신앓고
오월에 옻이들고
유월에 육신앓고
칠월에 치질앓고
팔월에 팔앓고

구월에 귀앓고
시월에 식들고
동짓달에 동동떠서
섣달에 서울간다.

## 비둘기謠

꾹꾹꾹꾹
지집죽고 꾹꾹 자식죽고 꾸꾹
헌누죽이 꾹꾹 불싸놓고 꾹꾹
망근팔아 꾸꾹 영장하자 꾹꾹
꾹꾹꾹꾹 꾹꾹꾹꾹

## 황새謠

황새야 황새야 늬어멈 죽었다
빨강댕기 빼놓고 흰댕기 들여라

## 가위바위보 1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우리선생 계실적에
옆전일전 주어볼까
일전말고 이전이요
이전말고 삼전이요
삼전말고 사전이요
사전말고 오전이요
오전말고 육전이요

육전말고 칠전이요
칠전말고 팔전이요
팔전말고 구전이요
구전말고 십전이요
구리구리구리 하나둘셋

## 가위바위보 2

쎗쎗쎄~ 쎗쎗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러기
우리선생 계신곳에
엽서한장 써주세요
구리구리 구리구리
가위바위보

## 기러기謠 1

앞에가는 도둑놈
뒤에가는 순경

## 기러기謠2

기럭아 기럭아
네새끼 등뒤에서
범따라 간단다
기럭아 기럭아
앞선놈은 뒤에서고
뒤에선놈 앞에서라

## 비타령

오네오네 비가오네
주룩주룩 비가오네
아침비는 햇님눈물
저녁비는 달님눈물
오네오네 비가오네
주룩주욱 비가오네
밤에 밤에 오는비는
청룡황룡 눈물인가

## 줄넘기謠

꼬마야 꼬마야
인사를 하여라
꼬마야 꼬마야
뒤로 돌아라 앞을 짚어라.
짚어서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잘자거라
진서방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인사하세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사람은 빨리빨리 나가주세요
바람아 불어라
바람이 불면 돌려주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할머니 들어왔다
두부장수 들어왔다
색시들어왔다

짝짝이 들어왔다 모두합하여
할머니 나가요
두부장수 나가요
짝짝이 나가요

## 발헤기 노래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인사만사 주머니끈
돌아간다 장도칼
열땅개 스물땅개
옴막쫌막 아래다래 딸 깍.

## 여우노래

한고개 넘어서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두고개 넘어서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멋쟁이
세고개 넘어서 여
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먹는다 무슨반찬
개구리반찬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 열무김치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무김치 들어간다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염라대왕 들어간다
아가리 딱딱 벌려가
열무김치 들어간다

## 지암 지암

지암 지암 지암
짝짝쿵 짝짝쿵 짝짝쿵
곤지 곤지 곤지
짝짝쿵 짝짝쿵 짝짝쿵
우리아기 잘한다
우리아기 잘한다
질라대비 훨~ 훨~ 훨~ 훨~

## 구름謠

구름간다 구름간다
구름속에 선녀간다
선녀적삼 안고름에
울금대장 향을 찾다
꽃밭에서 말을타니
말발톱에 향내난다

## 호박꽃謠

호박곷을 따다가 무얼만들까
우리아기 좋아하는
조롱만들지 조롱만들지

## 성내쟁이謠

성냈다 긑냈다
연지문 열어라
호박국 끓여라
너먹자고 끓여라
나먹자고 끓여라

## 고자질謠

일러라 찔러라
늬아비 상투에
돈한닢달고
깐댁 깐댁
일러라 찔러라
늬할애비 코꾸멍
바늘로 꼭꼭 찔러라

## 새야새야謠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 까치謠 1

까치야 까치야
내눈에 티들어간다
어서어서 꺼내주지 않으면
네새끼집에 불쳐지른다
까치야 까치야 뭘하러가니
새끼치러간다 몇마리쳤니
두말쳤다
너한마리 나한마리 나눠먹이자

## 까치謠 2

까치야 까치야
헌이 가져가고
새이 다오

## 까치謠 3

까치야 까치야
멱국에 쌀밥 말아주마
애기 눈에든 티 내다오

## 바람謠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대추야 대추야 떨어져라
아가야 아가야 주어라
아이골래 때골래 일른다

## 字音謠 1

이게 무엇이요.
옷 이요.
네-옵니다.
이게 무엇이요.
잣 이요.
네-먹습니다.
이게 무엇이요.
갓 이요.
네-갑니다.

## 字音謠 2

뒷동산에 봄春字
앞동산에 푸른靑字
구비구비 내川字
가지가지 꽃花字

## 字音謠 3

하늘천자 따지자에
집우자 집을짓고
날일자 영창문에
달월자로 밝혀놓고
우리들의 깊이든잠
하영목포 들을소냐.

## 맴돌기謠

고추먹고 뺑뺑
호초먹고 뺑뺑
담배머고 뺑뺑
(뺑뺑이 돌며)

## 군사놀이謠

어-데군사냐, 전라도군사다.
몇천명이냐, 수천명이다.
무슨갓썼-나, 통영갓 썼다.
무슨옷 입었나, 갑-옷 입었다.
무슨신 신었나, 쇠신 신었다.
무슨문 열었나, 동대문 열었다.
에-기여라, 동대문 열기.

## 春香謠

우기에라 연당밑에
금붕어 한쌍 놀아나네
그붕어잡아 회쳐놓고
춘향불러 술이나 먹자.

## 추위謠

추위추위 춘달래
까지달래 양달래
우렁까지 매방야

지평같은 새각씨가
구름같은 말을타고
천지고개 넘어가니
아가딸아 문열어라
춘향얼굴 다시보자

## 나무

나무나무 무슨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
열아홉째 스무나무
아흔아홉 백양나무
가다보면 오동나무
오자오자 옷나무
가자가자 감나무
총나간다 땅버들나무
바람솔솔 소나무
따근따끈 가시나무

## 자장가 1[2)]

자장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멍멍개도 짖지 말고 꼬꼬닭도 울지 말고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 아기도 잘도 잔다.

---

2) 장오재(여, 69세,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 자장가 2[3]

자장자장 우리아가
잘도잔다 우리아가
부모에겐 효장동이
나라한테 충신동이
동네방네 인심동이
동기간에 우애동이

## 자장가 3

자장자장 엉뚱아기
잘두잔다.
고양이도 자구
호랑이도 자구
쥐도자고 자고 새도자구
우리애기 잘도잔다.

## 자장가 4

자장자장 자장구야
우리아기 잘도잔다.
금자동아 옥자동아
금을준들 너를사며,
옥을준들 너를사랴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게 효자동이
일가친척 화목동이,

---

3) 김동순(여, 82세,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동네방네 유신동이
일가친척 화목동이,
태산같이 굳세거라
하해같이 깊어깊어,
유명천하 하여보지
자장자장 자장구야,
우리아기 잘도잔다

## 자장가 5

자자버지 자자버지
자장자장 자장자장 자장구야
우리아기 잘도잔다
멍멍이도 자더라
쌉쌉이도 자더라
검둥이도 자더라
자자버지 자자버지
자장자장 자장구야
우리아기 잘도단다
금자동아 옥자동아
금을준들 너를사며
옥을산들 너를사랴
나라에는 충성동이
부모에게 효자동이
일가친척 화목동이
형제간에 우애동이
태산같이 굳세거라
하해같이 깊어깊어
유명천하 하여보지

자장자장 자장구야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자버지 자자버지
우리아기 잘도잔다
자자버지 자자버지

## 자장가 6

자장 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멍멍개야 짖지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자장자장 잘도자네.

## 자장가 7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잔다
삽사리도 자구
우리애기 잘도자네
꼬꼬닭아 우리마라
우리애기 놀래면
단잠깬다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자네
얼룩개두 잘도잔다.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자네

자장자장
너하구 나하구
자장가나 부르자
자장자장
너두심심 나두심심
심심풀이나 해보자.
자장자장
니가자면 나두자고
니가깨면 나두깬다.
자장자장
엄마자구 아기두잔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는 어찌 이리
잠깐봐두 이쁘냐
눈을떠도 이쁘더라
빵긋 웃어도 이쁘더라
젖을 먹어도 움질움질
정말 이뻐
외자라건 저리 이쁘랴.
잠이오네 잠이오네
대추나무 단잠오네
잠이오네 잠이오네
동네방네 떼잠오네
대추나무 단잠오네
잠이오네 잠이오네
잔디밭이 떼잠오네
대추나무 단잠같이
오는 잠이

잠이오네 잠이오네
물레잠은 바로 물고
잠이오네 잠이오네
멍석잠은 바로들고
잠이오네 잠이오네
거적잠은 자꾸들고
잠이오네 잠이오네
이리단잠 왜못자리
잠이오네 잠이오네
(큰소리로)네 이년아 자거라.

### 자장가 8[4]

금을 주면 너를사냐
은을 준들 너를사랴
천금같은 보배동아.
부모에게는 효자동이
동기간에는 우애동이
이웃간에는 화목동이
나라에는 충성동이.

### 자장가 9

자장자장 엉뚱아기
잘두잔다.
고양이도 자구
호랑이도 자구
죄도자고 새도자구
우리애기 잘도잔다.

---

4) 김기복(여, 86세, 청양군 화성면 산동리)

## 자장가 10

아강아강 자장자장
우지말고 자장자장
삼년묵은 쇠뼉대기
살이 붙으면
너의엄마 온다드라
아강아강 자장자장
울지말고 자장자장
고목나무 잎이피면
너의엄마 온다드라
아강아강 자장자장
울지말고 자장자장
삶은밤 한되
군밤 한되
살강밑에 묻었는데
싹이나면 온다드라

## 꼬리따기 노래

배야배야 무슨배야 자라배다
무슨자라 업자라
무슨업 솔업
무슨솔 다박솔
무슨다박 천지다박
무슨천 대천
무슨대 왕대
무슨왕 임금왕
무슨임금 조선임금

무슨조 새조
무슨새 콩새
무슨콩 면화콩
무슨면화 옥색면화
무슨옥 구슬옥
무슨구슬 불구슬
무슨불 담배불
무슨담배 잎담배
무슨잎 밤잎
무슨밤 알밤
무슨알 꿩알

## 부엉이謠

떡해먹자 부엉
양식없다 부엉
걱정말게 부엉
언제갚게 부엉
가을에 갑지 부엉
낼모레가장이다 부엉





# 2. 勞動謠

노동요는 일을 하면서 부르는 민요로서 작업요라고도 한다. 노동요는 공동으로 작업을 할 때에 통일된 행동으로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지루함이나 피로함을 잊게 해주며 능률을 높인다. 노동요는 생산 활동에 따라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운반노동요, 토목노동요, 길쌈노동요 등으로 나눈다. 농업노동요는 밭갈이·모내기·밭매기·논매기·보리타작 등을 할 때에 주로 부른다. 어업요는 그물당기기·노젓기를 할 때에 주로 부른다. 토목노동요는 땅다지기·달구질 등이 있다. 길쌈노동요는 물레노래·삼 삼는 노래·베틀노래 등이 있다. 이외에도 방아노래·빨래노래·맷돌노래 등이 있다. 이러한 민요는 대부분 일을 떠나 부르는데 노래로 바뀌었는데 노래 그 자체에 즐거움을 얻는 노래로 바뀌었다. 그래서 노동요가 아닌 노래로 바뀌면서 가사가 세련되어지고 복잡한 형태로 되었다.

### 나무하러갈 때 하는 소리[5]

나무동무 나무하러가세
배아파 못가겠네.
무슨밴가 자루밸세
무슨자루 어업자루
무슨어업 진주어업
무슨진주 고은진주
무슨골 새골
무슨새 할매새
누구할매 니할매

### 지게가마를 타며 부르는 소리[6]

명덕봉에 쌍룡이 놀고 고무래봉 동이튼다
아이 어허 이이-이이
갈매봉에 신선놀고 국수봉에 선녀논다
아이 어허 이이-이이
가세가세 놀러가세 망월봉에 올라가세
아이 어허 이이-이이
망월봉에 올라가니 초생달이 떠오르네
아이 어허 이이-이이
저달은 떠서 대장이 되고

---

5) 오영범(남, 71세,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6) 조성구(남, 53세,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동화제를 지내고 난 후 동화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재배를 하였다. 이어서 뒤풀이로서 농악대들이 동화를 순회하면서 풍물을 쳤다. 상송, 하송, 비봉마을 사람들은 각각 지게 2개를 겹쳐서 지게가마를 만들어 한사람씩 태우고 선소리에 따라 함께 후렴을 부르며 동화주위를 둥글게 돌고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지게를 지고 작대기를 치며 춤을 춘다. 지게가마를 타며 부르는 소리이다.

아이 어허 이이-이이
견우 직녀성은 후군이로구나
아이 어허 이이-이이
하늘에 은하수를 오작이 다리놓아
아이 어허 이이-이이
견우와 직녀성은 일년일도 만나는 구나
아이 어허 이이-이이

### 지게춤을 추면서 부르던 소리[7]

홍두께 박달나무 비단같은 전나무
아하헤 헤에야 헤헤헤야 에헤헤야
죽어도 살구나무 버선 끝에 상모나무
아하헤 헤에야 헤헤헤야 에헤헤야
악마구리 복사나무 오목다리 오목나무
아하헤 헤에야 헤헤헤야 에헤헤야
등등에 모과나무 마주섰다 은행나무
아하헤 헤에야 헤헤헤야 에헤헤야
덜덜떠는 사시나무 넓적앉아 줄나무
아하헤 헤에야 헤헤헤야 에헤헤야
말라빠진 살대나무 입맛없다 쑥나무
아하헤 헤에야 헤헤헤야 에헤헤야
오자마자 가재나무 입설같은 맹조나무

---

7) 조성구(남, 53세,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동화불이 다 타면 부른다. 빙빙 돌기도 하고 각자 흥겨운대로 여러 가지를 한다. 나무소리와 비슷한데 조금 느리고 후렴이 다르다. 지게춤(어깨춤, 지게목발치기, 작대기치기)을 추며 원을 좁혔다 넓혔다 하면서 '휘장돌기'를 한 다음 마을단위로 지게로 봉을 쌓고 이어서 모든 주민이 하나의 지게봉을 쌓아 마을의 행운과 총화를 다지며 놀이의 절정을 이룬다.

아하헤 헤에야 헤헤헤야 에헤헤야
할수없이 가야나무 시집갈 때 가마나무
아하헤 헤에야 헤헤헤야 에헤헤야
빠르기 화살나무 방귀뀌며 뽕나무
아하헤 헤에야 헤헤헤야 에헤헤야
전기상태 수기나무 부끄러워 무안나무
아하헤 헤에야 헤헤헤야 에헤헤야

## 농부가 1

여봐라 농부들 말들어
여봐라 농부들 말들어
일락 서산에 해는 뚝 뚝떨어지고
월출 동령에 뭉게 뭉게 솟을 적에
우리나라는 무슨 풍조가 제일인가
천하지 농사밖에 또 있느냐
높은 데 갈면 밭이 되고
얕은데 갈면 논이되어
밭에다 오곡잡곡 심고
논에다는 벼를심어
여름에는 메가구서
가을에는 거둬들여
돌아왔네 돌아왔어
농사짓고 씨를 뿌릴 때가 돌아왔네.
우리네 인생들은 잡곡 아니면 살 수 있나
가을에는 거둬들여 유장에 넣고 선물하고
다 선물하고 남는 놈은 나랏전에 다 바치고
부모님께 공양하고 어린아해 열열히 가르쳐서

우리 대한민국 평화롭게 일궈 나가세
에에에--- 상사디야.

## 농부가 2

사해창생 만민들아
일생신고 원치말고
사농고상 생긴후에
농사밖에 또 있느냐
경인화시 가곤 후에
농사밖에 또 있는가
시농씨 가든 밭을
순임군익 뿌린 종자
점점 자라 익었으니
이천만 청청백성들아
저녁의 불던 바람
첫서리에 다 녹으니
우리 농부 쳐메어라

## 농부가 3

얼널널 상사디여
이농사를 어서지어
나라에 상납하고
부모처자 먹고살고
하여보세
얼널널 상사듸여
사오월 꾀꼬리는
수양버들 가지앉아

꾀꼬리 노래 부르는 소리
처량도 하다
우리 농부들은
농부가를 불러보세
뒷동산 살구꽃은
가지나 가지 보내신
얼널널 상사듸여
아침들 푸른벌판
보기만 하여도 배가 불러
얼널널 상사듸여

## 고사리타령

고사리고사리 요몹쓸 고사리
너를 꺾으러 여기왔든
님을 만나러 여기왔지
일락각서산 지는해에
님안오는 분푸리로
애꾸진 고사리만
목을 비틀어 꺽는다네
고사리고사리 얄미운 고사리도
하도 날때가 없기로소니
바위틈에가 돋았느냐
시집살이 고생살이
핑계가 좋은 고사리를
죄없는 고사리만
목을 비틀어 꺾는다네
고사리고사리 얄미운고사리
우리낭군은 어데를 가고

너만 혼자서 피었느냐
오마하고 안오는 우리님
원망을 해가면서
애꾸진 고사리만
목을 비틀어 꺾는다네

### 모심는 소리 1[8)]

허~~허~~아~~에~~~~~
에이~어~야~아~~
아~으로송 허~~이~~어~~
허~~~~~~~~아~~~
에~~~~~어~~~아~~
으라상~이~~어~~
어~~라 서산의~~이~
해넘기고~~오~~가을켠 동녘에 달이솟네~~에~~이~~
오하~오~허~ 상사디여
오로얼 오로 여기서루~
(여럿이)오하오하 상사디여 오하오하~
상사소리 날들라
오하오하 상사디여
서삭서삭 쒸워둘레세
오하오하 상사디여~

---

8) 유진영(남, 80세,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두벌멜 때 하는 소리로 '못방구'라고 하며 1단2단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장구, 꽹가리, 북, 징 등 사물악기를 다 치고 소리하며 모심을 때는 소리와 함께 장구만 친다. 모심는 기간은 총40일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 소리는 계속 이루어진다. 3단으로 갈수록 점점 빨라지며 그 소리를 상사소리라 한다. 메기는 사람은 작업이 끝날 때까지 소리를 앞에서 메기는데 일을 하지 않고 소리만 한다.

상사소리 나가들랑
오하오하 상사디여
소사소사 힘을내세
오하오하 상사디여

### 모심는 소리 2[9]

허~ 허~ 아~ 아~ 에~ 헤이~ 에~ 헤~ 아~ 상사디요~
어럴럴러 상사디여
상사소리가 나거들랑 어삭석삭 심어를 보세
어럴럴러 상사디여
상사소리가 왠소리냐
어럴럴러 상사디여
다심었네 다심었네 반달만치 남었구나
어럴럴러 상사디여
니가 무슨 반달이냐
어럴럴러 상사디여
초생달이 반달이냐
어럴럴러 상사디여
높이 떴던 해는 지고 저 달이 솟네
어럴럴러 상사디여
상사소리가 왠소리냐
어럴럴러 상사디여

9) 윤정근(남, 74세,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2구)
이 지역에서는 못방구 치는 소리, 못방구 친다고 말한다. 선소리꾼이 장구를 치며 소리를 메기는데 소리꾼이 소리를 먹이면 일꾼들이 후렴을 받는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되다가 점차 모심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소리도 점차 빠르게 진행되고 메기는 소리의 내용도 변화한다.

## 모심는 소리 3

뒷동산 살구꽃은
가지나가지 보내신
얼널널 상사디여
아침들 푸른벌판
보기만 하여도
배가불러
얼널널 상사뒤여

## 모심는 소리 4

이농사를 얼른지어
나라에 상납하고
부모처자 먹고지고
세세얼널널 상사뒤여

## 모심는 소리 5

아-아 바람이분다
아- 영평바다
갈바람분다
에이이이-야 에이이이-야

## 모심는 소리 6

저달은 하나라도
팔도를 보건만은
요내눈은 둘이라도
님하나 밖에 못보네.

## 모심는 소리 7

파랭이꼭지 상화를 꽂고,
마을애기 춤이나 추어보세.
얼널널 상사두야.

## 모심는 소리 8

겨울날 차가운데,
편히앉아 휴식하니
인간의 지락이라.
어혀여혀 상사뒤여.

## 모심는 소리 9

남방초야 네가왔다.
우리님이 보내드라.
우리님이 보낼적에
아모말씀 안하든가.

## 모심는 소리 10

남춘선 달밝은데,
순임금의 놀음이요.
오유월이 당도하니,
우리농부 시절이라.

## 모심는 소리 11

먼데사람 듣기좋은
가까운데 보기좋은

북 장고 장단에
심어나 보세.

## 모심는 소리 12

모시야 적삼 시적삼에
분통같은 저젖봐라.
많이보면 병난다네
살금살금 보고가자.

## 모심는 소리 13

만민지 항산이요,
천하지 대본이라.
교민화식 하온후에
농사밖에 또있을까.

## 모심는 소리 14

불빛을 등에지고,
진흙물에 들어서서
이농사를 이리지어
누구하고 먹자하노.

## 모심는 소리 15

사람마다 벼슬하면,
농부될사람 어데있나.
의사마다 병고치면
북망산천 왜생겼나.

## 모심는 소리 16

서울이라 언을띄워
거귀옥당 연걸였네.
아래웃방 시녀들아
연줄긋는 구경가네

## 모심는 소리 17[10]

여보아라 농부들 말들어보게.
나라국곡을 하려니와
부모봉양 늦어간다.
에헤에헤 어허야.
따에루 상사데야.

여보아라 농부들 말들어보게.
이논빰이 얼른매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에헤에헤 어허야.
따여루 상사데야.

## 모심는 소리 18

우리 오라비 양모배자.
어느누가 누볐는고,
서울기생 졸음나고
평양기생이 누볐다네.

---

10) 홍천석(남, 80세, 청양군 화성면 산동리)

## 모심는 소리 19

유자와 탱주는 의가 좋아
한꼭지에 둘이여네.
처자총각은 의가좋아
한벼게에 잠이드네.

## 모심는 소리 20[11]

만민지 항산이요, 천하지 대본이라
교량대식하온 후에 농사밖에 또 있을까.
먼데사람 듣기좋게
가차운데 사람 보기좋게
북 장고 장단에 심어나 보세나.
겨울날 차가운데
편이 앉아 체식하니
인간의 지락이나
어혀여혀 상사뒤여
남방초야 네가왔다
우리님이 모재드냐
우리님이 보낼적에
아모말씀 안하든가.
남춘천 달밝은데
순임금의 놀음이요
오유월이 당도하니
우리농부시절이라
모시야적삼 시적삼에

---

11) 우봉식(남, 71세, 청양군 목면 화양리), 우제두(남, 75세, 청양군 목면 화양리), 윤홍수(남, 68세, 청양군 목면 화양리), 우국명(남, 65세, 청양군 목면 화양리)

분통같은 저것봐라
많이보면 병난다네
상금살금 보고가자
불빛을 등에지고
진흙물에 들어서서
이농사를 이리지어
누구하고 먹자하노
사람마다 벼슬하면
농부될사람 어데있나
의사마다 병고치면
북망산천 왜생겼나
서울이라 연을띄워
거거옥당 연걸렸네
아래웃방 시녀들아
연줄긋는 구경가세
수건수건 반백수건
임이주든 반밸란가
수건귀가 떨어지면
임의정도 없어지지
여보아래 농부들
말들어 보게
나라국곡을 하려니와
부모봉양 늦어간다
에헤어헤 어헤야
따에루 상사데야
여보아라 농부들
말들어 보게
이논뱀이 얼른매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에헤에헤 어허야
따여루 상사데야
우리오라비 양모배자
어느누가 누볐는고
서울기생 졸음나고
평양기생이 누볐다네
유자와 탱주는 의가좋아
한꼭지에 둘이여네
처녀총각은 의가좋아
한벼개에 잠이드네
저달은 하나라도
팔도를 보건만은
요내눈은 둘이라도
님하나 밖에 못보네
패랭이꼭지 상화를 꽂고
마을애기 춤이나 추어보세
얼널널 상사두야

### 논매는 소리 1(이가락)[12]

---

12) 윤정근(남, 74세,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2구)
논을 맬 때 하는 소리로 두레소리, 만물소리라고도 한다. 논을 매러 가는 것을 '두레 나간다'고 하며 이때는 꽹과리, 북, 장구 등 풍물을 치며 나가고 논에 도착해 소리를 시작하면 장구만을 가지고 소리를 한다. 주로 이 가락으로 소리를 시작하는데 속도가 매우 느리고 길게 늘어진다. 때문에 금방 숨이 차올라 소리를 이어가기 어려워 이 가락을 하는 선소리꾼을 최고로 여긴다. 이 가락으로 시작된 소리는 논매는 속도에 맞추어 느려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는데, 민요나 유행가가 선소리로 매겨지기도 한다. 이 가락은 선소리꾼이 메기는 대로 일꾼들이 받아서 소리를 한다.

이~ 이~ 이~ 에헤~ 에~ 에~ 이~ 에헤~ 에~ 아~ 상사디요~
에~ 이~ 어~ 헤어~ 에~ 에~ 이~ 에허~ 에~ 아~ 상사디요~

## 논매는 소리 2[13]

어~~~허~~~~~
허~~~에~~에~~
상사여~~어~~~
도련님이 가신단다 이별주를 갖추어라
향단이랑 술상드리고 춘향이랑 술병들고
도련님 나오너라~~아~~
아~~예~~이~~~~~~~~~~~~아~~아~~~~~~~~~~~

어~~어~~어~~~~~예~~~
털석어~~
반병이오 부질 것은 임이로다
임아임아 서방님아
요한 것은 손넘어게
동화같이 못된님에
피고같이~~
동짓섣달긴긴밤에 이~~
나던네야 아~~~
아~~아~~아~~에~~아~~아~~에~~

이~~허~~에~~이야~~아~
상사~아~~예~~에~~

---

13) 유진영(남,80세,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모심는 소리보다 더 처량맞다. 일주일동안 논을메고 그동안 소리를 계속한다. 2단3단의 구성으로 되어있다.

오하오하 상사디여
(여럿이)오하오하 상사디여
상사소리 나고들은
오하오하 상사디여

## 논매는 소리 3(벙어리두레)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사람은적어도
얼카덩어리
오늘은이곳에서
얼카덩어리
내일은 이디로가나
얼카덩어리
삼간에 일간뎅이로
얼카덩어리
드믄드믄메어나볼까
얼카덩어리
석양에 해는 걸쳐
얼카덩어리
일거리많은데
얼카덩어리
오여발을 멀리멀리
얼카덩어리
자진가락으로 넘어갈까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어여차덩어리
얼카덩어리
얼카덩어리
욱여드름이여(좁혀가며)
에이…….

### 도리깨질 소리[14]

허허~~허~~허~~허~~이~~
잘도서나 잘도서나 우리궁정
잘도서나 허~~허어~~이
아~헤~~야 허~~헤~~헤~~어~~헤에~~
왔나 왔나 왔네
아~~헤~에~~아하헤~~에이~~

### 타작할 때 하는 소리 1[15]

헤야 허-
박 잡고 술먹세 헤야 허-
저 건너 갈매봉 헤야 허-
먹구름이 두른다 헤헤야 헤헤 헤야 허-
참나무 개상이(눌러서) 닭 잡고 술 먹세 헤야 허-
열닷말 솔밭탱이(큰 항아리) 용수만 박아라 헤야 허-
여보셔 도련님 헤야 허-

---

14) 유진영(남, 80세,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여럿이 작대기를 두드리며 하는 소리이다.
15) 이상각(남, 71세,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대덕마을)

손목을 놓으세요 헤야 허-

## 타작할 때 하는 소리 2[16]

왔다 에에야 헤아-혜
저건너 갈미봉 아-혜
비몰아온다 아-혜
우장을 두루고 혜-혜-혜-혜
에야헤 어허듸야 에야혜.

## 격양가 1

일락서산에 해는지고
월출동령에 달이솟네
에헤 어여루 상사뒤요
산아 산아 백두산아
눈비맞아 백두드냐
에헤 어여루 상사뒤요
산은 첩첩 천봉인데
물은점점 은하수라
에헤 어여루 상사뒤요
중성왕 어지임금
천년대한을 다스렸네
에헤 어여루 상사뒤요
청운공명 좋은 호강
이농사를 당할손가
에헤 어여루 상사뒤요

---

16) 이필화(남, 청양군 화성면 매평리)
자리개질 소리바슴이라고 하는데 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이다.

하우씨 어진임금
구년홍수를 다스리고
에헤 어여루 상사뒤요

## 격양가 2

여봐라! 농부님네
말들어 보소
얼럴럴 상사디야
얼럴럴 상사디야
여봐라! 농부님네
말들어 보소
얼럴럴 상사디야
얼럴럴 상사디야
높으데 갈면은
밭하나 되고
얼럴럴 상사디야
얼럴럴 상사디야
낮은데 갈면은
논하나 되네
얼럴럴 상사디야
얼럴럴 상사디야
갈고 또 갈아서
옥토를 이루어 보세
얼럴럴 상사디야
얼럴럴 상사디야

## 격양가 3

일락서산에 해는 지고
월출 동령에 달이 솟네
에헤……어여루 상사뒤요
산아산아 백두산아
눈비 맞아 백두드냐!
에헤……어여루 상사뒤요
산은 첩첩 천봉인데
물은 점점 은하수라
에헤……어여루 상사뒤요
하우씨 어진 임금
구년 홍수를 다스리고
에헤……어여루 상사뒤요
청운공명 좋은호강
이농사를 당할는가
에헤……어여루 상사뒤요
남전북답 기정하여
우리성군께 공세하세
에헤……어여루 상사뒤요

## 물레노래 1[17]

물레야 물레야 잘도돈다.
만첩산이 고리싸리
충수산이 고리싸리
석수대정 들은가락
들메국을 제이여는
오롱오롱 잘도돈다.

---

17) 백영현(여, 75세,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 물레노래 2

물레야 물레야
잘도 돈다.
오서산이 고리싸리
칠갑산이 고리싸리
석수대정 드른가락
들메국을 제기면은
오롱조롱 잘도 돈다

## 풍년가 1[18]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명년 춘삼월에 하중놀이를 갈까나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구나
명년 오뉴월에 노고놀이를 가보세

## 풍년가 2

풍년이왔네 풍년이왔네
금수강산에 풍년이왔네
지화자좋다
어헐시구나 좋다 좋냐
명년 춘삼월에
화류놀이를 가잔다.
올해도풍년 내년에도풍년
년년이 해마다 풍년일세
지화자좋다

---

18) 이상각(남, 71세,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대덕마을)

얼시구나 좀두좋냐
명년 삼사월에
녹음노를 갈가나
풍년이왔네 풍년이왔네
천하지 대본은
농사밖에 또있으랴
놀지말고
농사에나 힘쓰잔다

## 풍년가 3

풍년이왔네 풍년이왔네
금수강산으로 풍년이 왔네
에-라 좋다
어헐씨구나 정도2 좋-네
연년이 모내고 김에서
모배주로 키워놓니
농사안질사람 그 누구이드냐
에-라 좋다
저건너 김풍월 거동을 보아라
타작가리 못통에수
춤만 덩실춘다
에-라 좋다
천하지대본은 농사밖에 또있나
술마시고 일하세
에-라 좋다
연연해해마다 대풍년이로구나
에-라 좋다
풍년이 들려면

입풍년 들고요
바람이 불려면
지화바람 불어라





# 3. 婦 謠

여성들의 민요라면 대부분 부요(婦謠)라 할 수 있다. 시집을 가서 고된 시집살이와 낮에는 농사일로 바쁘지만 밤에는 베틀 앞에서 모시나 명주를 짜고 옷을 깁는 것이 옛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모습이다. 특히 시집살이는 결혼하여 남편과 애틋한 정을 담은 것이 아니라, 낯선 시집식구들과의 관계에서 정신적인 갈등을 겪으며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들을 민요로 표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이를 겪어낼 수 있어야 며느리로서 인정하고 주부권을 부여하였다. 시집을 왔지만 며느리로서 권한을 부여받을 때까지 시집살이를 이겨내야 했다. 따라서 부요의 대부분은 시집살이나 가사 일을 주제로 한 민요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고된 시집살이에도 힘든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남편과 시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신랑 집 거처로 시집을 와서 어려운 외로운 일상생활이 부요의 대부분을 이룬다.

## 시집살이요 1[19]

시어머니 죽었더니
좋다고 하였더니
아름목자리 내차리라
좋다고 하였더니
보리방아 물보니께 생각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시아버지 죽었더니
좋다고 하였더니
왕골자리 떫어지니 생각나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야
서방님 죽어도
좋다고 했더니
나뭇가지 떨어지니 생각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야
시누님 죽으니
좋다고 했더니
물동이 물떨어지니 생각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시집살이요 2

가지밭에 들어가서
늙은 가지 젖혀 넣고
젊은 가지 따다 가서
지름장에 들러 내여
시아버지 반찬 장만하야겄네.

---

19) 한계숙(여, 75, 청양군 남양면 매곡1리)

고추밭에 들어가서
늙은 고추 젖혀 놓고
젊은 고추 따다 가서
지름장에 들러 내여
시아버지 반찬 해야지.

호박밭에 들어가서
늙은 호박 젖혀 놓고
젊은 호박 따다 가서
지름장에 들러 내여
시아버지 밥상에 반찬올려.

그래도 시아버지 밥상 들고
가기가 미안하네.
얼것이랑 무엇하야.

시아버지 반찬갖구
밥상 들고 들어 갈가
장관에 가서 떠들어 보니
간장 된장밖에 없구나.

시아버지 반찬을
밥세어다 무얼 할까
들러보고 들러봐야
할 것이 없구나
할일 없이 그저 밥상 들고
시아버지 앞에 들어가니
놓을 수가 없구나.

미안하구 어려웁고 두려워도
할 수 없이 밥상 놓고
돌아서서 나오니
얼굴이 불 같네.

## 시집살이謠 3

시집간제 삼일만에
행주치마를 둘러치고
부엌이라고 나가서
칠탕관이라고 열어보니
거미줄이 켜켜로 앉었더라

양지짝에 올고사리
와직근 찍어다가
칠탕관에 자글자글 지져놓고
사랑에를 나가서
식음색금 시아버니
일어나서 세수하고
진지상을 받으시요
들은체도 아니하네
안방에를 들어가서
식음색금 시어머니
일어나서 세수하고
진지상을 받으시요
들은체도 아니하네
건너방에 들어가서
동실동실 동세님아

일어나서 세수하고
진지상을 받으시요
들은체도 아니하네
아랫방에 나려다려
원수백년 착원이
일어나서 세수하고
진지상을 받으시요
들은체도 아니하네
좁싸리를 옆에끼고
앞광에를 나려다려
후미목을 매어걸고
뒷뜰에를 올려다려
살미논 서마지기
홰홰썰썰 매어놓고
논두렁에 앉아보니
은가락지 끼든손에
호미자루가 웬일인고
금붕차를 찌르든 머리에
좁싸리가 웬일인고
못살겠네 못살겠네
시집살이 못살겠네
논두렁에 두러누어
좁사리를 덮고
자는듯이 누었으니
허릴없는 체봉이다
시금시금 시아버지
일어나서 들어가보니
새며느리 간곳없네

앞뜰에를 나려다보니
난데없는 체봉이 있네
이것이 웬일인가
나려가 떠들어보니
새며느리 죽엄이로구나
아강아강 며눌아강
시집온제 삼일만에
이것이 웬일이냐

## 시집살이요 4

동모내야 동모내야
수수깨비 동모내야
들미나리 캐러가자
얼마나 캐였드뇨
한바구니 캐였드네
샛변같은 종솥에다
댓잎같이 대와내여
앞냇걸에 시쳐내고
뒷냇걸에 헤여내고
은장도 드는 칼에
어석버석 긁어내여
앞집에 호초넣고
뒷집에 깨소곰 넣고
부뚜막에 참기름 넣고
삼년묵은 고초장에
오년묵은 지럼장에
쪼각쪼각 주물러서
큰방에 아부님요

그만자고 일어나소
은대야에 세수하고
반폭수건 낯을 닦고
이것조곰 잡사보소
머릿방에 여호같은 시누부야
고만자고 일어나소
세수통에 낯을 싯고
낯수건에 낯을 닦고
이것조곰 먹어봐라
아랫방에 종년들아
대문깐에 해 들었다
개밥비당에 낯을 싯고
치맛자락에 낯을 닦고
이거조곰 먹어봐라
에라 요년 물어가거라
머릿방에 머슴들아
도랑가에 해도 떴다
고만자고 일어나서
도랑가에 낯을 닦고
이것조곰 먹어봐라
에라 요놈 물어앉아거라

**보리방아소리**[20]

시어머니 죽으면 좋다더니~이
보리방아 물어보려니께 생각나네~~
방물자리 떨어지니께 생각나네~~

---

20) 김동순(여, 82세,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시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시집살이를 시켜 밉지만 돌아가시자 그리워하며 방아를 찧는다는 내용의 가사라 한다.

## 방아찧는 소리(덩더러쿵)[21]

덩더러쿵 덩더러쿵
칠탄이 방아
언제나 다 찧고 밤마실 갈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는 열두고개
이무신 고개는 한고개요

## 꼬댁각시 노래 1[22]

꼬댁 꼬댁 꼬댁 각시
한살 먹어 어멈 죽고
두살 먹어 아범 죽어
세살 먹어 걸음 되고
네살 먹어 말을 베어
삼촌 집에 찾아가니
삼촌 숙모 밥하다가
부줏깽이 날라오네
삼촌한테 찾아가니

---

21) 우종손(여, 84세,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22) 정일순(여, 74세, 청양군 남양면 온양리)
꼬댁각시는 보편적으로 '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놀이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노래'의 성격이 강하다. 이것은 원통하게 죽은 꼬댁각시를 달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을 '성춘향을 놀린다(논다)'라고 하는데, 이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성춘향의 구구한 운명을 달래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16세 전후의 시집 안 간 젊은 동네 처녀들이 한 방에 모여 앉아 노래를 부르며 합창한다. 어느 때나 상관없이 했고, 심심한 처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노래를 부르던 중, 한 처자가 성춘향의 혼이 담겨서 신이 들리게 된다. 그는 주위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시집 가장 빨리 갈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그 중 한 사람을 지목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서당에서 글을 읽다
천둥같이 호령하네
아이고 담당 설움지고
다섯 살이 먹었을 때
짚만 남은 삼베 적삼
말만 남은 베치마에
꺼끄리고 이집저집
문전걸식 다니다가
여섯살이 먹었네요
시집이라고 가고 보니
고자낭군 얻었노라
아이고 담당 설움지고
이내 신세 어찌 하리
불상하고 가련하니
꼬댁 꼬댁 꼬댁각시

## 꼬댁각시 노래 2

꼬댁각시 불쌍하네
한 살먹어 어멈죽구
두 살먹어 아범죽구
세 살먹어 말을배야
네 살먹어 삼촌집이 갔더니만
삼촌숙모 베를매다
솔자루루 내여치구
삼촌은 마당썰다
마당비로 들어치네
아이구스러 이내담담
밥이라도 주능것은

삼년묵은 보리찬밥
굽이굽이 사발굽이 붙여주네
반찬이라 주능것은
된장찌개 접시구이 붙여주네
수제라고 주능것은
무슨수제냐 통수제지라
천리밖이 던져주네
그수제를 줏어다가
먹을라니 눈물맥혀 못먹겄네
아이구담담 내설움
우리어머니 날슬적에
가지너물 잡섰덩가
가지가지 슬푸네
우리어머니 날슬적에
고추너물 잡섰덩가
꼬치꼬치 슬푸도다
우리어머니 날슬적이
두룹너물 잡섰덩가
두루두루 슬푸네요
그렁저렁 살구보니
십오세가 당도해서
중신애비 들락날랑
앞문차구 들오며는
뒷문차구 나가구
뒷문으로 들어며는
앞문차구 나가구
그래저래 시집이라 가구보니
시아버지라 암팎곱새

시어머니 앉은뱅이
서방이라 허는짓은 고재낭군이라
아이구담담 설운지구
연방죽이나 빠져죽지(부여군지)

하늘에다 베틀놓고
구름잡어 잉아걸고
참배나무 바디집에
대추나무 연지북에
짤각짤각 짜느라니
울어머니 죽었다고
통지왔네 하던일손
멈추고서 한모랭이
돌아가니 곡소리가
치렁허고 두묘랭이
돌아가니 상여소리
진동허네 네모랭이
돌아가서 잔디로다
집을짓고 대방속대
정자삼아 앵당파리
벗을삼고 산천속에
묻혔으니 한심하고
처량허네 일낙서산에
해는지고 월천동녘에
달이 돋으니 어느구가
날찾을가 어느부모
동기간이 나를 찾을소냐
불쌍하고도 가련하네.

춘향아 춘향아
이팔청춘 성춘향아
나이는 십팔세
생일은 사월초파일
오늘하루 이가정에
펄펄놀아 봅시다.

영자씨 영자씨
우리 영자씨
놀이좋고 경치좋니
펄펄 놀아 봅시다.

## 꼬댁각시 3

꼬댁꼬댁 꼬댁각시
꼬댁각시 불쌍하다.
한살먹어 어멈죽고
두살먹어 아범죽고
세살먹어 말을배워
네살먹어 걸음배워
다섯살에 삼촌집으로
차츰차츰 찾어가니
삼촌댁 밥하다가
부줏댕이로 몰아내네
삼촌의는 마당쓸다
마당비로 몰아내네.
아이고나 답답스런지고
대고나 답답스런지고

그럭저럭 먹은것이
십오세가 되었건만
중신아래 들락날락
시집이라 가고보니
계딱지로 솥을걸고
신랑이라 쳐다보니
범벅상투 고재낭군
아이고나 답답스런지고
연방죽에 빠저볼까.
신발벗어 뚝에놓고
연잎사귀 올라나볼까.
댓닢끝에 올라나볼까.
둥실둥실 놀아보세.
너도소년 나도소년
제비춤도 추어보고
나비춤도 추어보고
둥실둥실 놀아보세.

## 꼬댁각시 4

꼬댁꼬댁 꼬댁각시
한살먹어 어머니 죽어
두살먹어 아버지 죽어
세살먹어 말을 배워
네살먹어 걸음 배워
다섯살에 삼촌집에 가니
삼촌이랴 마당쓸다
바지락으로 내려쫓네

아이구 답답스런지고
요내팔자 왜이런가
방이라고 들어가니
사촌오빠 공부하다
서상대로 내어쫓네
아이고 다답스런지고
요내팔자 왜이런가
밥이라고 주는것이
구비구비 사발굽에
붙혀주네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내팔자 왜이런가
그럭저럭 열대여섯살에
중신애비 들랑날랑
예랴 요년 네년때미
아낀 문지방 다 닳는다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내팔자 왜이런가
사주라고 받은것이
가랑잎사구 받었고나
옷이라고 해준것이
허리만 남은 삼베고장이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내팔자 왜이런고
시집이라 가서보니
고재낭군 얻었고나
아이고 답답스런지고
요내팔자 왜이런고

부엌에라고 들어가보니
밑빠진 솥만 남았드라
광이라고 가서보니
밑빠진 바구니 하나 걸렸네
그 바구니 옆에끼고
뒷동산에 올라가니
양지쪽에 발고사리
음지쪽에 먹고사리
디듬디듬 꺾어다가
국 끓이고 밥을지어
열두반상 봐다가
시금시금 시아버지
구만저만 주무시구
아침밥상 받으시오
예라 요년 못 먹겠다
네나 먹고 개나 줘라

### 베짜기 노래[23]

엄말도 하심심하기에
베트는 노래나 불러보세
에헤야 데헤야아~
낮에 짜이면은 일본단이요
밤에 짜면은 월광단이라
에헤야 대헤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

---

23) 정일순(여, 74세, 청양군 남양면 온양리)

수심 노래나 불러보세
에헤야 댜해야~
아이야라난다 대해라야
이것도 내 사랑이로다

### 베틀謠 1[24]

베짜러 가세 베짜러 가세
밤에 짜는건 물반바니
낮에 짜는건 일반바니
베짜러 가세 베짜러 가세

### 베틀謠 2[25]

오날날은 하심심하니 베틀이나 놓아나 볼까
에헤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끼노라
낮에 짜면은 일광단이요
밤에 짜면은 월광단이라
일광단 월광단 어느 시절에 다 짜가지고 어느 곳에 성공할까
에헤요 베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 끼노라

### 베틀謠 3

하늘에다 베틀놓고
구름잡아 잉어걸고

---

24) 김동순(여, 82세,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25) 명제임(여, 73세,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덕다리)

짤각짤각 자느라니
편지왔네 편지왔네
한손으로 받아들고
시앗죽은 편질러라
옳다고년 잘죽었다.
고기반찬 비러드니
소금반찬 고습고나
무슨병에 죽었더냐
분홍치마 발키드니
상사병에 죽었다네.

## 베틀謠 4

오늘날은 하 심심하기에
벼틀이나 놓아나 볼까
에헤헤야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만 끼누라.
낮에짜면 일광단이요
밤에짜면 월광단이니라
일광단 월광단 다 짜놓고서
어느때나 시집을 가나.

## 베틀謠 5

벼틀을 놓세 벼틀을 놓세
옥간간에다 벼틀을 놓세.
에헤요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도 많어라
에헤요오.
낮에 짜는건 일광단
밤에 짜는건 월광단
일광단 월광단
언제나 다 짜구
밤마실 가나.
에헤요 벼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벼틀에
수심도 많아라.

## 베틀謠 6[26]

오날은 하두 심심하여
벼틀이나 놓아볼까.
사랑노래 벼짜는 아가씨
앞뒤문을 여닫고 벼를 짜서
낮에짜면 일광단이요
밤에짜면 월광단이요
일광단 월광단 합하여
야광단 짜서
정든님 옷을 하여주네.

---

26) 김기복(여, 86세, 청양군 화성면 산동리)

## 妾　謠

섣달이라 그믐날에
편지한장 오랬더냐
무슨편지 오랬더냐
시앗죽은 편지더라
옳다그년 잘죽었다.
무슨병에 죽었더냐
분홍치마 발킬년이
상사병에 죽었더라.







# 4. 민간신앙요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는 옛날부터 전해지는 신들이 있다. 산에는 산신이 있고 마을에는 당신이 있고 강에는 용신이나 수신이 있는 것으로 믿어왔다. 집안에도 부엌에는 조왕신이 있고, 변소에는 측간신이 있고, 집안에는 성주신이 있고, 마당에는 터주신이 있듯이 집안이나 집밖에 여러 신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믿어왔다. 이러한 신들을 위하거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부르는 노래가 민간신앙요이다. 상여소리는 장례에서 상여가 나갈 때에 상여꾼들이 부르는 장송가 이다. 대체로 불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회심곡의 일부를 부르기도 한다. 회닫이소리는 묘를 만들 때에 흙에 회를 섞어 다졌기 때문에 '회방아소리'라고도 한다. 대체로 인생의 허무함과 삶을 어려움을 노래하기에 구슬프다.

## 동화제에 나무를 해올 때 부르는 노래[27]

산에 올라 산나무 평생소녀 대추나무
우러여차 에헤 헤에에헤
들에내려 배나무 사시사철 사시나무
우러여차 에헤 헤에에헤
봉화국에 회나무 대낮에도 밤나무
우러여차 에헤 헤에에헤
불에붙어 행나무 사월팔일 느티나무
우러여차 에헤 헤에에헤
불밝혀라 등나무 먹기얼린 떡갈나무
우러여차 에헤 헤에에헤
용춤추어 용나무 휘늘어져 버드나무
우러여차 에헤 헤에에헤
십리절반 오리나무 배양청청 황양나무
우러여차 에헤 헤에에헤
열의갑절 스무나무 증기증기 드릅나무
우러여차 에헤 헤에에헤

---

27) 『청양군지』(1995년) 참고.
청양군 청산면 송학리에서는 정월 14일에 회관 앞 마당에서 동화제를 지낸다. 부녀회장이 제사 준비를 맡고 다복한 사람으로 제관을 정해 제를 지낸다. 비용은 걸립으로 하였으나 요즘엔 풍물패의 상금으로 사용하고, 제물은 돼지머리를 사용한다.
동화제를 위한 나무는 주로 잡목으로 하는데 동화나무는 예전에는 가시나무만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한 집에 한 사람씩 산에서 나무를 해서 마당에 내려와 여럿이 같이 묶는다. 정월 열나흗날 오후에 나무를 해서 오후 2~3시정도부터 묶기 시작한다. 30~40분 정도 나무를 다 묶을 때까지 부르는데 매듭은 7번 묶는다. 해질 무렵 불을 붙인다. 불은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이나 총각이 붙이는데 불을 붙이면 소원을 빌어준다는 속신이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입으로만 전해지다가 부여의 박홍남씨가 1987년에 동화제를 연출했다. 예전에는 황봉준씨가 부르셨는데 돌아가셨다. 살아계셨다면 90세가 넘으셨을 것이다. 나무하러 갈 때도 불렀지만, 열나흗날 동화제 때 주로 불렀다.

한치라도 백자나무 갈기갈기 가락나무
우러여차 에헤 헤에에헤
조선에만 호도나무 칼로베어 피나무
우러여차 에헤 헤에에헤
남쪽에만 동백나무 목에걸려 가시나무
우러여차 에헤 헤에에헤
프르러도 단풍나무 속비고 대나무
우러여차 에헤 헤에에헤
단풍져도 푸른나무 내편네편 양편나무
우러여차 에헤 헤에에헤
씨름하여 저나무
우러여차 에헤 헤에에헤

### 회다지소리 1(달궁소리)[28]

이씨 조선 오백년이
어허이~ 달궁~
이곳에 터를 잡고
어허이~ 달궁~
대한 만년 가리로다
어허이~ 달궁~
삼각산 줄기가 뚝 떨어져서
어허이~ 달궁~
어디 간줄을 몰랐더니
어허이~ 달궁~
경상 태백산을 마련하고
어허이~ 달궁~

---

28) 조성구(남, 53세,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태백산 줄기가 뚝떨어져
어허이~ 달궁~
어디 간줄은 몰랐더니
어허이~ 달궁~
전라도 지리산을 장만했네
어허이~ 달궁~
지리산 명기가 뚝떨어져서
어허이~ 달궁~
어디간 줄 몰랐더니
어허이~ 달궁~
충청도로 올라와서
어허이~ 달궁~
계룡산을 이뤘으니
어허이~ 달궁~
금강수를 벼게로 베고
어허이~ 달궁~
신도안을 품에 안아
어허이~ 달궁~
백제 천년 도읍지라
어허이~ 달궁~
계룡산 명기가 뚝 떨어져서
어허이~ 달궁~
어디 간줄을 몰랐더니
어허이~ 달궁~
이댁 산소터를 마련했네
어허이~ 달궁~
산소터를 둘러 보니
어허이~ 달궁~
명당일시 분명쿠나

어허이~ 달궁~
앞남산을 바라보니
어허이~ 달궁~
아홉룡이 벽우를 쌓듯
어허이~ 달궁~
뒷남산을 바라보니
어허이~ 달궁~
부처님이 잠자는듯
어허이~ 달궁~
문필봉이 뚜렸하니
어허이~ 달궁~

### 회다지소리 2[29]

산지주종은 권령산이요
수지주종은 황해수라~.
에헤라 영차~
권령산 명기 어디간지 몰랐어니
백두산이 기병일세.
에헤라 영차~
백두산 명기 어디간지 몰랐어니
금강산에 와 뚝떨어졌네~.
에헤라 영차~

---

29) 최재만(남, 79세,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한마디씩 메길 때마다 상여 메고 갔던 사람들이 연출을 들고서는 돌아가면서 발로 다지면서 "에헤라 영차~" 하며 소리를 한다.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다지고 흙이 질퍽거릴 정도로 30분 정도 다진다. 가래줄 안에 상주가 상여 메는 사람에게 회 다질 때 돈을 준다. 제비집 안에도 돈을 받았다. 상여 멜 때도 절하고 돈을 준다. 호상일 때만 한다.

금강산명기 어디간지 몰랐어니
북악산에 와 뚝 떨어졌네.
에헤라 영차~
북악산 명기 어디간지 몰랐어니
국사봉(운곡면에 있는 봉우리)에 우중주충 내려왔네.
에헤라 영차~
한씨 상가 유택지에 와 뚝 떨어졌네.
에헤라 영차~

### 회다지소리 3[30]

곤륭산 남백이 뚝 떨어져서, 에야라 달곡
오-호 오-호 에헤에이 호-오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오-호 오-호 에헤에이 호-오
일가친척 많다지만 어느누가 대신 간다하냐
오-호 오-호 에헤에이 호-오
일생백년 산다해도 삼사십이 못헤는데
오-호 오-호 에헤에이 호-오
아버님전 뼈를빌고 어머님전 살을빌어
오-호 오-호 에헤에이 호-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마라
오-호 오-호 에헤에이 호-오
명춘삼월 돌아오면 너는다시 피건만은
오-호 오-호 에헤에이 호-오

---

30) 이용희(남, 73세,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 회다지소리 4

오호~ 오~ 오~ 달고~
오호~ 오~ 오~ 달고~
산지조정은 곤륜산이요
에이기여라달고
수지조정은 황하수라
에이기여라달고
곤륜산난맥이 뚝떨어져
에이기여라달고
박성산명산 이루고서
에이기여라달고
천하대지가 여기로다
에이기여라달고
이산소 디린후에
에이기여라달고
자손만당 낳을것이요
에이기여라달고
이산소 디린후에
에이기여라달고
부귀등명 할 것이다
에이기여라달고
일락서산에 해는지고
에이기여라달고
월출동령에 달이솟네
에이기여라달고
산아산아 백두산아
에이기여라달고
눈비맞아 백두드냐

에이기여라달고
산은첩첩 천봉인데
에이기여라달고
물은점점 은하수라
에이기여라달고
하우씨 어진임금
에이기여라달고
구년홍수를 다스리고
에이기여라달고
주성왕 어진임금
에이기여라달고
청운공명 좋은호강
에이기여라달고
이농사를 당할능가
에이기여라달고
세상천지 만물중에
에이기여라달고
사람밖에 또있는가
에이기여라달고
아버님전 뼈를빌어
에이기여라달고
어머님전 살을빌어
에이기여라달고
이세상에 생겨나서
에이기여라달고
한오백년 살잤더니
에이기여라달고
부모은공 못다갚고

에이기여라달고
이세상을 이별하니
에이기여라달고
오늘날은 황천길로
에이기여라달고
나혼자만 돌아가네
에이기여라달고
죽장망해 단포대로
에이기여라달고
천리강산 들어가니
에이기여라달고
산은높고 골은깊어
에이기여라달고
두견접동이 난잡히우네
에이기여라달고
슬프도다 우리인생
에이기여라달고
어찌하여 이곳왔나
에이기여라달고
오호~ 오~호~ 오~ 오~ 달고

### 회다지소리 5[31]

오오오 오 오 달고
백마치고 청마치자
춘하추동 성튼몸이
허적네루 평안히 누워

---

31) 최병헌(남, 70세, 청양군 운곡면 방주골)

세상사가 좋다헌들
문나문전이 좋다헌들
약을 쓴들 소용이 있나
갖은고생 하—여서
아들남매 보와길 때
긴절이는 내가 나누고
어린네는 마른디 누워
갖은고생 하시어소
여러남매 다길러 가지고
오늘같이 살은인생
아들딸을 다 여의고
이제까지 하신고생
그동안의 하신공은
그 어디루 다— 가고
연 육십을 다 못넘기고
인간이별이 웬 말이냐
나는 것은 한숨이고
들리는건 눈물이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생이 태어나서
구비구비 넘은 고개
오늘로서 마지막이다
나는것은 눈물이고
흐르는 소리는 눈물이다
이간이게 헌다는게
그동안을 어이 헐라고
오늘같이 살었는데
여러가수 모여놓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수도보고 살렀는디
이리가니 허구허다
어기여라 달구

### 상여소리 1[32]

(발인추축)
영의제가 왕즉유택 영결용천

간다간다 나는간다
임을두고 나는간다
잘살아 잘살아
아들딸들아 잘살아라
손자들아 잘살아라
화목하게 잘살아라
삼천갑자동방석이가
삼천갑자를 살았다만
염라대왕을 못달래고
저승길로 다시가네
가마솥에 삶으는 개가
꺼정껑 짖으면 오실라나
우멍솥에 삶은 밤이
싹이 나면 오실라나

---

32) 10명이 적당하다 상여14자짜리는 10명이 들면 맞는다. 옛날에는 13~14명이 들기도 하였다. 그 집에서 서러워하는 부분을 노래로 만들어서 한다. 망자의 입장에서 자식에게 말하는 내용의 가사이다. 다른 동네에 가면 개인적 이야기는 별로 할 수가 없다 그 집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에 대부분 회심곡 가사를 사용한다. 그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노래가사를 만들어 부른다.

벽에 붙인 ○○○화상이
활개를 치면 오실라나
기독교 목사님말씀대로
예수님 재림지에 오실라나
노세노세 젊어 놀아
인생일장춘몽인데 아니놀지 못하리라
문전없다 세세년년
풍년들어서 부자되어 잘살으시오
가오가오 나는 가오
임을 두고 나는 가오
동네어른들은 건강해서
오래오래 백수상수하옵소서
효도하세 효도하세
부모님께 효도하세

(중간에 상여가 멈춘다.)

(요령을 치며)쉬어가세
재간하고 어려우니 저굴탱이가서 쉬어가세
술한잔먹고 쉬어가세

간다간다 나는간다
이월풍설 나는간다.
잘살어라 잘살어라 내아들아
내딸들아 잘살어라
안녕히 계셔 건강들 하슈
동네어른들 안녕히 계슈

(후렴)어허~ 허~허~~헤~어리넘자 어하헤~~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방보고 웃지마라
지금가시는 우리아버지
가실날짜 일러주고 가시오
가마솥에 삶은 개가
꺼정껑 짖으면 오실라나

어허 어허 어허헤~~어허이~~어~~허헤~~

### 상여소리 2[33]

불쌍하고 가련하다 가련하고 불쌍하지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네 인생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올적에
어허허 어히 어하
만고풍상 비바람을 몇 번이나 겪어왔나
어허허 어히 어하
심신헌몸 높은산과 가시성을 그 얼마나 넘어왔나
어허허 어히 어하
살어 평생 사는동안 일생 인생 춘몽인데
어허허 어히 어하
빈손들고 나왔다가 빈손들고 가는 인생

---

33) 김청섭(남, 44세,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구)
전문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관심이 많아서 직접 테이프(새샘음반, 기획:김영철, '상여소리')를 사서 들으며 가사를 적어 소책자로 만들었다. 이것은 그것에 적혀있는 가사이다. 가사는 그 때마다 다르게 부르곤 한다. 예를 들면 IMF로 힘들 때는 'IMF를 극복하자', 차부(터미널)를 지나가거나 택시를 지나갈 때 '급할 때 타던 이것을 언제나 타보겠나' 등이 있고, 상여가 나가기 전에 미리 가서 자식이나 형제 등의 이름을 알아두고 가사에 넣어 부른다. 제보자는 이제까지 40번 정도 직접 해보셨다고 한다.

어허허 어히 어하
어이웃고 애달구나 불쌍하고 가련허지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 원생이 보님네들 이네 한말씀 들어보소
어허허 어히 어하
살어 평생이 먹고 놀고 쓰고 입고 노다가세
어허허 어히 어하
이 세상을 생각하면 뜬구름같이 어이없지
어허허 어히 어하
가는길은 어디메며 가는 한은 어디까진가
어허허 어히 어하
춘추는 연년북이요 왕추는 길을기라
어허허 어히 어하
인생 백년을 산다해도 근심걱정 다 제허면
어허허 어히 어하
병든날과 잠든날과 세상 모진을 생각하면
어허허 어히 어하
한 사십도 못살인생 어이웁구 애달구나
어허허 어히 어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 세상을 하직하구
어허허 어히 어하
좋은 시절 글른 세월 나쁜 액운을 다 걷어가지구
어허허 어히 어하
후손들은 잘 살으라고 남은 복은 전쿠가게
어허허 어히 어하
간다 간다 간다더니 어제이슬 오늘 펴서
어허허 어히 어하
네 늙으느니 맑으느니 저승길이 머다느니

어허허 어히 어하
오늘 내가 당해서는 대문앞이가 저승인데
어허허 어히 어하
송헌들은 꽃을보고 주야 평생이 시륙헌먼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어디 얼만큼 좋을손가
어허허 어히 어하
살어 평생 이 한 못풀고 원 많아서 어이가나
어허허 어히 어하
불쌍허구 가련허구 애절허구두 처량허지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 만민 동포님들 우리고장에 사는 인생
어허허 어히 어하
좋구 나쁘구 궂은일 좋은일 같이허면서 살든이들
어허허 어히 어하
일시 일초에 한이가도 이별 될줄은 몰랐는디
어허허 어히 어하
오늘 내가 당허구보니 이별이 무언가 알것구나
어허허 어히 어하
살어 이별은 망발인데 죽어 이별은 어이하나
어허허 어히 어하
여보시요 동포님네들 니에 한 말씀 들어보소
어허허 어히 어하
살어서 평생이 살을적에 우리들 마음을 손실말고
어허허 어히 어하
남의뒤에 억울함없이 악헌일없이 살어가며
어허허 어히 어하
좋은일두 많이허구 기본되는일 많이 헐적에
어허허 어히 어하

나는 운명을 다살어서 오늘 이세상 하직을 허구
어허허 어히 어하
후손들에게 전장을 허구 북망산천 돌아갈때
어허허 어히 어하
북망이라 하는곳은 몇만리나 되겠기에
어허허 어히 어하
한번가구 돌아가면 소식두없구 못오는 곳
어허허 어히 어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 잎진다 서럴마라
어허허 어히 어하
너는 명년춘삼월이라 새봄이 다시오면
어허허 어히 어하
꽃은 피어서 화산되고 잎은 피어서 청산되면
어허허 어히 어하
벌 나비도 찾어와서 반겨워라 상봉컨먼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 인생덜 한번가면 어느친구가 나를 찾나
어허허 어히 어하
낙영산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어허허 어히 어하
영웅호걸은 몇몇이며 절대가인은 그 누구인가
어허허 어히 어하
아차 우리두 한번가면 저와 저무덤 같은 인생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 일생이 살어온길을 불철주야로 생각허면
어허허 어히 어하
눈물은 흘러서 한강이 되고 한심은 귀어서 동남풍인데
어허허 어히 어하
이 세상에 사는동안 우리 백성들 친구들과

어허허 어히 어하
부모 형제들 어린자매들 어이 손 떼고 내가 가나
어허허 어히 어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 세상을 하직허구
어허허 어히 어하
북망산천 돌아갈적에 어이없이 돌아갈 때
어허허 어히 어하
한숨이 맥혀서 어이가며 눈물이 어려 어이가나
어허허 어히 어하
오늘 내가 북망산천을 돌아간다고 소릴듣고
어허허 어히 어하
산천초목도 서러워하며 인생한을 맺혀가네
어허허 어히 어하
이왕지사에 내가가고 이왕지사에 갈바이는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동네 후손 인생들 대복 영복이나 주고가지
어허허 어히 어하
잘사시요 잘사시요 우리백성들 잘사시요
어허허 어히 어하
내가 가면 아주를 가나 아주 간다고 잊을손가
어허허 어히 어하
가는 나는 할 수 없이 염라왕에서 불러가니
어허허 어히 어하
내가 운명을 끊구가두 우리동중의 여러분들
어허허 어히 어하
부귀공록을 많이 찾구 명두받구 운두 받어서
어허허 어히 어하
원 맺혀서 한어린 서른마음을 품지 말고
어허허 어히 어하

부귀 영화를 누려놓고 한평생을 잘 사시요
어허허 어히 어하
가는 나는 가거니와 두고 가는 우리 인생들
어허허 어히 어하
아들 낳고 딸을 나서 장래 충성을 잘 누려가며
어허허 어히 어하
국태미남 태평성대로 길이길이 잘사시요
어허허 어히 어하
어이가나 어이가나 원 많아서 어이가나
어허허 어히 어하
불쌍허구 가련허다 가련허구두 애통허다
어허허 어히 어하
북망산천 가는 길은 험하구두 멀고 긴데
어허허 어히 어하
섬섬한 노 멀고먼길 어이가서 어이사나
어허허 어히 어하
침구 벅이 좋다해도 죽음에는 소용없고
어허허 어히 어하
인가 친척이 좋다해도 죽음길은 원한이 있지
어허허 어히 어하
같은 길은 살어서 있고 틀리는 점은 죽어서 있네
어허허 어히 어하
좋구 글루구 잘살구 못살구 원한 한탄은 다 씻어버리구
어허허 어히 어하
이왕지사에 떠나는 몸 한 평생이나 풀구가소
어허허 어히 어하
원적없구 한적없이 이 세상을 하직했으니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 백성 여러분들 길이길이 발전해서

어허허 어히 어하
잘사시요 잘사시요 내가 가구두 잘사시요
어허허 어히 어하
열두군사를 맞이하여 발 맞춰서 내가 간다
어허허 어히 어하
심심헌논 넓고 좁고 고향산천 등에지고
어허허 어히 어하
북망산천을 내가 가도 여러 어진 백성님들
어허허 어히 어하
잘사시고 잘노시다 후원 없이들 잘사시요
어허허 어히 어하
어 허 ~ 어 허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천지 만물중에 사람밖에 더 있는고
어허허 어히 어하
만민 여러 백성님들 이내 한말씀 들어보소
어허허 어히 어하
이세상에 나온 우리들 누구덕으로 태어났나
어허허 어히 어하
부처님의 공을 빌고 칠성님전 명을 타고
어허허 어히 어하
천지 음양 타고날적이 제성님이 복을 빌어
어허허 어히 어하
이내 일신 타고 나니 한도살이는 절을 몰라
어허허 어히 어하
부모 은공 알을소며 옛날 옛적을 생각허면
어허허 어히 어하
마른자리는 나를 눕히구 젖은자리는 엄마가 누우며
어허허 어히 어하

쓴것은 엄마가 먹고 단것은 나를 먹이며
어허허 어히 어하
애중지중의 애간장을 다 놓이며 나를 키울때
어허허 어히 어하
바람불면은 날을까요 꼭 쥐면은 깨질까봐
어허허 어히 어하
애지중지 길른내가 어이 세월따라 성장해서
어허허 어히 어하
남은 여가 배필맞어 백년기약을 다 허면서
어허허 어히 어하
검은 머리가 파뿌리되고 세상 월력을 타고날때
어허허 어히 어하
일년일도 하루같고 춘하추동 사시사절인데
어허허 어히 어하
꼭치고 잎이지면 찾어월색 춘절이요
어허허 어히 어하
녹음방초 대매광은 사월 난풍하절인데
어허허 어히 어하
금품은 소슬하여서 새벽정성 슬피울면
어허허 어히 어하
꽃두지구 잎두지니 구월춘풍에 추절이라
어허허 어히 어하
백설이 분분하면 청산도 조리절인데
어허허 어히 어하
만경에 임종멸하면 창설녹줄 동절이라
어허허 어히 어하
인간 칠십 거래하면 무정세월 양육헌데
어허허 어히 어하
사십풍경이 좋은시절 아니놀구 아니먹구

어허허 어히 어하
아니쓰구 아니놀면 어이허구 어이할까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 인생들 타고나서 무럭의이 찬생해서
어허허 어히 어하
허리띠 졸러서 양식을 삼고 한숨을 담어서 배부르게
어허허 어히 어하
일생한을 못잊이어서 일편단심 굳은마음
어허허 어히 어하
마음가짐을 다허면서 세상일생을 살어가며
어허허 어히 어하
아들을 나면은 효자되고 딸을 노면 열녀가 되여서
어허허 어히 어하
부귀공명을 늘여놓고 한 평생을 살자더니
어허허 어히 어하
운명은 재천이요 인간수명은 한정이 없지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 만민 여러분즐 이내 한말씀 또 들어보소
어허허 어히 어하
인생이라 하는것은 일장춘몽 한줌인데
어허허 어히 어하
서산 명월 지는해는 지구싶어 지가지나
어허허 어히 어하
인생청춘 늙은몸은 늙고싶어 지가 늙나
어허허 어히 어하
오늘 살고 내일을 알면 어이누가 걱정을 허나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천지 만사중에 인간길운을 다 못허고
어허허 어히 어하

만사에 뜻이 없고 의욕이 기운이 없어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 백성 손님네들 이네 한말씀 또 들어보소
어허허 어히 어하
부귀 빈촌은 돌고돌고 세상 운명도 돌고 도는데
어허허 어히 어하
모든 악심은 다버리고 선심선덕을 많이 가져서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가 살면서 다못한일을 후손에게도 전작을 할때
어허허 어히 어하
좋은 일두 많이주구 남은 복도 내려 주면
어허허 어히 어하
밤이면은 찬이슬 받어 세상온기를 다 내려주고
어허허 어히 어하
낮이면은 발은광명에 인간의 길을 찾어주며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인심이 같을세라 좋은줄을 많이 찾어서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인생들 사는길이 악의 악식 탐허지 말고
어허허 어히 어하
순지평파 고운길로 마음 고쳐서 잘살아가세
어허허 어히 어하
허허 청춘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두 엊그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어이없다
어허허 어히 어하
세월이 가고 인생이 늙으니 아이어이 탄식일세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인간 만백성들 한마은 한뜻은 같을지라

어허허 어히 어하
남의 일손에 탐력을 마시고 나의 심력을 잘길러서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고쳐서 성장길을 높여갈때
어허허 어히 어하
나라에게는 충성이 되고 부모에게는 효자가 될때
어허허 어히 어하
동기간에는 우애를 허구 동네방네 칭찬받어서
어허허 어히 어하
온나라 한백성들 일자리라도 헛점없이
어허허 어히 어하
백년동락을 같이허구 한마음 같은 세월속에
어허허 어히 어하
온기정기를 타고난 우리들 한탄 원망을 저버리구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만물 인간직위라 귀중한 우리몸 생각해서
어허허 어히 어하
청산목죽 인간환생 만인백성 세주님네들
어허허 어히 어하
산천초목을 다 둘러봐도 인생과 함께 같을손가
어허허 어히 어하
사는 운명을 탓하고 날때 같이 운명을 다 못하고
어허허 어히 어하
어떤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고대광실 높은 집이
어허허 어히 어하
동서남북 좌우면으로 운을 내고 살건마는
어허허 어히 어하
어떤사람은 빈손빈몸이 비참한 가난을 못잊이여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우리들 세조님네들 한마음 한뜻은 같을세라
어허허 어히 어하
아들을 낳고 딸을 나서 애지중지 길러낼때
어허허 어히 어하
먹을것도 많이 먹이고 잘 가르쳐서 성공시키며
어허허 어히 어하
온갖 만민 남녀노소에 사랑도허구 귀엽게 길러서
어허허 어히 어하
인물자랑에 모두가 인생 욕심가진건 한마음인데
어허허 어히 어하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우리의 금생이 어수계여
어허허 어히 어하
타고난 운명속이니 잘살고 못사는것 원망말고
어허허 어히 어하
근검절약 모두가 같이 마음을 합하여 동심허면
어허허 어히 어하
글 못배우고 충성을 못한다 모두가 원과 한을 만들고
어허허 어히 어하
일생일신의 찬금이라 내 몸이 금중허니
어허허 어히 어하
살어나서 일생한몸 자기 몸두나 근신을 잘허여
어허허 어히 어하
건강도 많이 찾고 원명도 많이 받어서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릇된 일은 다 접어버리고
어허허 어히 어하
좋은일만 삼구어 두었다 어진 백성들 선도허며
어허허 어히 어하
후손들에게도 기본이 되고 본받어서 귀영되게

어허허 어히 어하
잘살고 잘놀다 가며 한평생 잘놀다 갑시다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만물 많은인생 어린인생들 여러분들
어허허 어히 어하
이내한말을 들어보구 우리용교를 바랍니다
어허허 어히 어하
인생백년을 산다해도 병든날과 잠든잘과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운명을 생각허면 한 사십도 못산다는디
어허허 어히 어하
어제이슬 오늘 여성 어이없고 애달구나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천지 만물중에 우리여러 마님네들
어허허 어히 어하
이내 한말 들어보소 우리 부모가 날 기를적에
어허허 어히 어하
어떠한 정성이며 어떤 마음이 길렀는가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천지 만물중에 우리인생이 태어날적에
어허허 어히 어하
밤이면은 운기받고 낮이면은 양기받어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채워 날 때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 부모님 고통사를 생각하면 어이없지
어허허 어히 어하
어 허 ~ 어 허
어허허 어히 어하

열달을 고치채워 우리 탄생허년 후에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 부모 은공을 알면 누가 불효가 있을손가
어허허 어히 어하
한두살에 철을몰라 부모은공 알을소냐
어허허 어히 어하
어 허 ~ 어 허
어허허 어히 어하
인생백년을 다짐토록 부모은공을 생각허면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나서 기를적에 불철주야 시시때때로
어허허 어히 어하
겨울이면 추울세라 여름이면 더울세라
어허허 어히 어하
이불덮어 잠재워주고 다독다독 하는 마음
어허허 어히 어하
따스한 부모인정은 일푼이라도 면할 수 없네
어허허 어히 어하
어 허 ~ 어 허
어허허 어히 어하
여름이면 더울세라 부채질 설렁 설렁
어허허 어히 어하
더위없애고 시원한자리에 부모마음 한결같으리
어허허 어히 어하
애지중지 모은재산 잘먹고 잘쓰고 잘지내 봤나
어허허 어히 어하
모락모락 자라나는 자식뒷바침 생각을 해서
어허허 어히 어하
한푼두푼 허리띠 졸라매 모두가 일생이 다 늙어간다

어허허 어히 어하
어 허 ~ 어 허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 부모가 날길러서 효자 귀염둥이 잘 되라고
어허허 어히 어하
유치원 보내서 교육을 배우고 학교를 가서 교육을 배워
어허허 어히 어하
모든 정신이 남보다 투철해서 잘되길 바라는 부모마음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 부모 은혜를 생각하면 일생한을 못잊겠구나
어허허 어히 어하
어 허 ~ 어 허
어허허 어히 어하
가는 세월을 잡어멜소냐 오는 일생한을 막을소냐
어허허 어히 어하
자식은 성장해 귀염이 넘치고 부모는 늙어 힘이 없으니
어허허 어히 어하
세월따러 여론따러 시소따러서 사는 인생
어허허 어히 어하
자식은 커서 제 한질되면 남은여가 베필 맞어서
어허허 어히 어하
제의 각기 살길을 찾어서 허둥지둥 하건마는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 부모들 모두가 늙으면 홀로서 번신이 탄식일세
어허허 어히 어하
어 허 ~ 어 허
어허허 어히 어하
그자식을 키우느라 살마디 모두가 물씬 아픈줄 모르고
어허허 어히 어하

춘하추동 사시절을 세월이 가는지 모르면서
어허허 어히 어하
애지중지 자식마음이 어렵고 아픈둘 모르면서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일생을 다살고보니 원두많구 한두많다
어허허 어히 어하
어 허 ~ 어 허
어허허 어히 어하
나무라도 고목이 되면 오던새도 아니오구
어허허 어히 어하
꽃이라도 낙화가 되면 오든 나비두 아니오네
어허허 어히 어하
초로 우리네 인생들도 호호백발 늙어지면
어허허 어히 어하
어느 인생이 날좋아하며 어느친구가 찾어올까
어허허 어히 어하
불쌍하구 가련허지 인생 한백년 불쌍허지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 인생 살어온길을 눈을 감고 생각을 허면
어허허 어히 어하
험한산은 몇번을 넘고 거센물결은 몇번 건넜나
어허허 어히 어하
만구풍상 비바람은 몇번이나 겪어왔나
어허허 어히 어하
어린자식들 길러낼적이 헐짓못헐짓 다허면서
어허허 어히 어하
애매한소리 많이 듣고 우매함정을 몇번 빠졌나
어허허 어히 어하
부모삭신이 시들어지고 발톱손톱이 다쳤어도

어허허 어히 어하
고귀한 우리자손 잘살고 잘되길 다바라네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천지 만물중에 여러분들 백성님들
어허허 어히 어하
이내한말 들어보소 남녀노소 할것없이
어허허 어히 어하
어떤부부가 자식을나서 못되기를 바라는고
어허허 어히 어하
자식은 부모도 아프고 자식이 다치면 부모가 쓰라리지
어허허 어히 어하
일평생을 살어가며 애지중지를 못잊는다
어허허 어히 어하
인생백년 살어갈때 어이없구 한심허지
어허허 어히 어하
어제이슬 오늘져서 슬프구두 굴 허구나
어허허 어히 어하
낙영산 십리허에 높고낮은 저 무덤은
어허허 어히 어하
영웅호걸은 몇몇이며 절대가인은 그 누구인가
어허허 어히 어하
아차 인생 한번가면 저와같이 되련만은
어허허 어히 어하
공드라니 백발이면 면치못할 죽엄인데
어허허 어히 어하
천황지황 인황시면 유수 우탕노 너주구
어허허 어히 어하
첩첩음성 봉해씨면 말잘하던 소진장군
어허허 어히 어하

육구지왕은 달랬으나 염라대왕은 못달래구
어허허 어히 어하
한번죽엄은 못면했으니 그러한 영웅열사들두
어허허 어히 어하
그 무엇을 남겼나요 여러 우리 선인 인생들
어허허 어히 어하
살어서 죄악을 짓지말고 죽어서 좋은길 떠납시다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천지 만물중에 여러남녀 노소님들
어허허 어히 어하
이웃정에를 가정에 살며 인생한백년 살을적에
어허허 어히 어하
정을 나누고 먹을걸 나누며 서루살며 왔건만은
어허허 어히 어하
구름같이 태어났다 구름같이 사는 인생
어허허 어히 어하
빈손들고 태어났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어허허 어히 어하
남녀노소 여러분들 정한명은 없건만은
어허허 어히 어하
오늘 살다 내일 어쩔지 장래인생이 알길없네
어허허 어히 어하
세상천지 여러분들 이내한말씀 더 들어보소
어허허 어히 어하
살어서 평생 육신성헐적이 잘먹고 잘놀다가세
어허허 어히 어하
못먹고 못쓰고 굶주린 우리가 늙어가면은 어느누가 아나
어허허 어히 어하
세월은 흘러서 먼길이오고 인생은 늙어서 죽을길 찾으니

어허허 어히 어하
명사십리 해다오하야 꽃이진다 서럴마라
어허허 어히 어하
너는 명년봄이오면 화창한 봄날씨 운을 뜨고
어허허 어히 어하
나무나무가 물이오르면 마디 눈이 솟아나네
어허허 어히 어하
꽃은 피어 화산되고 잎은 피어 청산인데
어허허 어히 어하
벌나비 날아와서 반가운세상 자랑하며
어허허 어히 어하
꽃은보고 반가워라 없던노래도 잘하면서
어허허 어히 어하
푸르고 빛나는 닢파리 찾어서 숨바꼭질드 잘허는디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인생 한번가고 죽어서 영결종천되면
어허허 어히 어하
어느누가 나를 찾어 반갑고 좋은말 전해주나
어허허 어히 어하
열두군사에 꽃상여 태워서 명산좋은데 찾어가면
어허허 어히 어하
이자리 눕히구 저자리 찾어서 꿈꾸나를 다질적에
어허허 어히 어하
인생살이 살아간마음 자손들아 들어봐라
어허허 어히 어하
양유수 흐르는 물두 흘러흘러 내려가구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네 인생덜 모두가 살적에 자손길러서 길이길이
어허허 어히 어하

내려 사랑이 그지없으니 그것두 인생이 환명인가
어허허 어히 어하
어 허 ~ 어 허
어허허 어히 어하
죽어 평생이 살아남은 인생 못잊어 우리가 어떻게 가나
어허허 어히 어하
가는길이 험하다구 마구치면서 가지말구
어허허 어히 어하
오구가구 만나구 웃으며 우리살던 고향여러분들
어허허 어히 어하
내가 이세상 등을지구 저세상을 간다해두
어허허 어히 어하
여러분들 맘으로 모두 합심들 잘허시여서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고장이 발전되구 길이길이 기본이 되여서
어허허 어히 어하
효자 마을로 이름을 떨치고 청념결백 굳은마음
어허허 어히 어하
일년 일시라도 변하지말고 잘살기를 부탁합니다
어허허 어히 어하
없는 재물을 허욕탐허지말구 있는재물로 상부허면서
어허허 어히 어하
허이풍상은 떨치지말구 옳은 발길로 길을 걸어
어허허 어히 어하
참되고 웃고 즐기고 살면서 우리네 인생의 고운마음을
어허허 어히 어하
길이길이 보장해서 평생을 잊지않고 잘살어가오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네 인생 죽어지면 인사공정도 허무없고

어허허 어히 어하
말잘허구 글잘하며 남을 다스리고 살던내가
어허허 어히 어하
이세상을 하직허구 저 산천을 가게되니
어허허 어히 어하
어이없구 애달프구 불쌍허구두 처량하네
어허허 어히 어하
모든 궁상의 흘른세월은 꿈속으로만 가버리구
어허허 어히 어하
남은 후세 두고가는 인생들 모두가 합심잘하여서
어허허 어히 어하
길이길이 발전들하고 길이길이 잘들사오
어허허 어히 어하
우리 자손들 험담말고 부모원망도 한탄을 말게
어허허 어히 어하
불효자식이 따로있고 원망듣는 부모가 따로있나
어허허 어히 어하
자식을 나서 곱게기르고 부모가 이위께 잘하여서
어허허 어히 어하
자손들 공로를 잘세워주고 수사범절을 잘 가르칠때
어허허 어히 어하
어느자식의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모두가 잘알어서
어허허 어히 어하
부모가 떠난이후에도 인사공정 청념결백
어허허 어히 어하
좋은 마음이 잘살어갈까 한심하구두 원망스럽다
어허허 어히 어하
세월이 여류하야 홍안 백발 달려들면
어허허 어히 어하

없던 망녕도 절로나구 구석구석 없는 모양
어허허 어히 어하
늙으니 망녕이라구 선을보고 웃는모양 허질마라
어허허 어히 어하
잘덜사오 잘덜사오 고향산천 여러분들
어허허 어히 어하
내가 간들 잊을소며 가도 꿈속에 못잊을 인생
어허허 어히 어하
인생이라 한번나왔다 한번가니 그만인데
어허허 어히 어하
어려서 죽어도 정한명이요 중년죽어도 정한명이라
어허허 어히 어하
오늘살다 내일죽어도 정한몸은 그지없네
어허허 어히 어하
옛날옛적에 우리들 죽어서 고인님덜 다짐할적에
어허허 어히 어하
우청룡 좌백호 찾고 좌백호 우백호 찾더니
어허허 어히 어하

## 상여소리 3[34]

울지마라 우리상주
눈도붓고 목도쉰다
두고가는 나도싫다
우리마라 우리상주
어려서는 철을몰라
부모은공 못다감고
삼사절을 당도하여
부모별세가 웬말이냐
간다간다 나는간다
정든집을 떠나간다
부부백년 살자더니
임자먼저 가는구나
한번죽어 가시는양반
어느시절에 날찾아올까
가세가세 어서가세
북망산천을 어서가세
허망하다 허망하다
인간세상 허망하다
명사심리 해당화야

---

34) 조성구(남, 53세,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40년 전에는 쌍줄로 12명씩 24명(한쪽에 두 줄)이 맸다. 그리고 양쪽 6명씩 12명(한쪽에 한 줄)이 맸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10명 정도가 맨다. 상여를 안 쓴지는 10년이 넘었다. 황봉준씨 조카인 황영주씨가 상여소리를 했었는데 60세 정도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제보자인 조성구씨가 하게 되어 10여 년이 되었다.

상여는 500~1000m 정도 나간다. 다리를 건너갈 때 안가고 상여에 절하고 돈을 조금 받는 정도의 사위를 놀린다. 이 돈은 다시 돌려주는데 상주가 동네에 기부를 하기도 한다. 빈 상여를 매고 어둡기 시작하는 초저녁(7~8시)에 집을 돌지는 않고 바로 나가 1시간정도 걸린다.

꽃진다고 서러마라
명년삼월 춘삼월에
너는다시 피련마는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올줄 왜모르나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뒷동산에 할미꽃도
젊으나 늙으나 꼬부라졌다
천하일색 양귀비도
낙화가 되면 허사로다
우리도한번 늙어지면
저모양이 될것이니
가는세월 원망말고
가는세월 허수마요
이제가면 언제오나
올날이나 기막히소
까마귀머리가 되거든오시나
닭머리뿔나면 오시려나
우리인생 한번가면
만수장몽 운무로다
세상천지 만들적에
사람낳고 글을질세
날생자를 내였거든
죽을사자 왜냈던가
이두글자 내신양반
날과둘이 웬수로다
명정공포 앞세우고

처자식을 뒤에딸고
먹던밥을 개덮어놓고
하닐없이 어딜가오
이볼통저볼통 저남산보아라
우리도죽으면 저모양된다
일곱매끼 꽁꽁묶고
일곱곡깔 등에지구
송죽으로 울을삼고
떼장으로 이불삼어
심심산골 홀로누어
과거지사를 생각허니
올려다보느냐 만악은천봉
내려다보느냐 백설이땅이라
산도설고 물도선곳
누구를보려고 나여기왔나
은하작교가 콱무너졌으니
건너갈길 막연하다
저승길이 멀다하니
대문밖이 저승일세
파란망정 막걸리장사
목이말러 못가것네
먼데사람 보기좋고
가찬데사람 듣기좋게
잘모셔라 잘모셔라
우리군정네 잘모셔라
배고픈가 밥을주어
기갈공덕 하였구나
옷없는자 옷을주어

누의공덕 하였구나
목마른자 물을주어
갈수공덕 하였구나
종졸종졸 종졸이새는
청장만장 구만장떴다
앞에가는 저행전에
그대산소가 어드메요
울타리밑에서 꼴비는총각
눈치가있으면 떡받어먹지
떡은받어서 팡개질치고
손목만잡고 발발떤다

## 상여소리 4[35]

황천길에 멀다더니
오구보니 지척일세
어-허-하-해-해-허-하
문전학덕 다버리고
북망산천 웬 말인가
어-허-하-해-해-허-하
어머니께 살을 빌어
아버님께 뼈를 빌어
어-허-하-해-해-허-하
이세상에 태어날 때
칠성님께 명을 빌어

---

35) 최재만(남, 79세,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상여소리는 요량쟁이가 하였다. 요량쟁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요량쟁이의 메기는 소리에 따라 상여 메는 사람들이 발맞춰서 받는 소리를 했다. 가사는 주로 회심곡이 많으며 슬프게 불러야한다. 후렴구는 "어-허-하-해-해-허-하"로 한다.

어-허-하-해-해-허-하
태어나는데~
북망길이 웬 말이냐.……
어-허-하-해-해-허-하
명상십리 해당화여
꽃진다고 서러마라
어-허-하-해-해-허-하
너희네는 명년봄이면
다시 필렸마는
어-허-하-해-해-허-하
우리네는 한번가면 구만리네.
어-허-하-해-해-허-하

### 상여소리 5[36]

아버님 뼈를 빌고
어머님전 살을 빌고
오-호 오-호 에-헤이 허-호
십삭을 고이 채워
인간 탄생한 후에
오-호 오-호 에-헤이 허-호
연연후에 부모공은 못하고
안간을 떠나가네
오-호 오-호 에-헤이 허-호

---

36) 이필화(남, 청양군 화성면 매평리)
인사편, 왕생축원편, 극락편으로 나누어 부르는데 법사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로 불교 경전에서 구절을 많이 따와서 4마치 장단이나 8마치 장단으로 소리를 메긴다. 요즘에는 4마치 장단으로 매기는 사람만 있을 뿐 8마치 장단으로 메기는 사람은 없다.

일찍사자 일찍사자
장님도령 거동보소
오-호 오-호 에-헤이 허-호
바늘같은 이내몸을
팔뚝같은 쇠사슬로
오-호 오-호 에-헤이 허-호
앞뒤를 절박하여
어서가자 바삐가자
오-호 오-호 에-헤이 허-호
성화같이 재촉하기에
대문밖을 섞나섰네
오-호 오-호 에-헤이 허-호
대신 갈사람 전혀없어
할수없이 나는가네
오-호 오-호 에-헤이 허-호
밥 세그릇, 신 세 켤레
돈-성냥이 놓여있네
오-호 오-호 에-헤이 허-호
여보시오! 사자님네
내말좀 들어보소
오-호 오-호 에-헤이 허-호
이밥 먹고, 이신 신고
돈 성냥을 가려가세
오-호 오-호 에-헤이 허-호

### 상여소리 6

이소리가 끝나거든
왼발부텀 내노시오

어- 허허- 헤에- 헤이 허- 하
가네가네 나는가네
너를두고 나는가네
어- 허허- 헤에- 헤이 허- 하
이별이네 이별이네
아들 딸과는 이별이네
어- 허허- 헤에- 헤이 허- 하
보고싶네 보고싶네
아들 사위좀 보고싶네
저승길이 머다더니
대문밖이저승일세
저승길이 머다더니
딸랑딸랑 하거니와

### 상여소리 7

〈1〉 느린 소리
극락세계가 멀다더니
문밖이가 극락일세
어허허- 하에혜야허- 하
잘있거라 잘살어라
잔손들아 잘있거라
어허허- 하에혜야허- 하
물어본들 소용있나
불러본들 대답없네
어허허- 하에혜야허- 하
이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구나

고꼬닭아 우지마라
니가울면 날이세고
날이세면 나는간다
이팔청춘 소년들아
백발보고 웃지마라
어린아이 소년되고
소년되면 청년되어
청년되면 노인되고
노인되면 될것없네
가실날은 알것인데
오실날짜는 모르것네
봉황새가 앞을가고
동자님이 앞을가니
백팔염주 목에걸고
극락세계로 들어가시오
명사십리 해당화는
봄이되면 꽃피는디
우리인생도 한번가면
영영 고만이로구나

〈2〉 빠른소리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어허허- 하에혜야허- 하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어허허- 하에혜야허- 하
은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어허허- 하에혜야허- 하
고대광실 높은 기단
입구자로 집을 짓고
천년만년 부모 모시고
살려고 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이세상을
하직하여 떠나셨네

〈3〉 달구소리
에- 헤라달- 구 / 에- 헤라달- 구
강원도라 명산은 /백두산이
명산인데
에- 헤라달- 구
경기도라 명산은 / 삼각산이
명산인데
에- 헤라달- 구
충청도라 명산은 / 공주계룡
산이 명산인데
청양에 명산은 / 칠갑산이
명산인데

### 상여소리 8[37]

어어하하 이히 너하 넘자 너후
나는간다 나는간다
일경종천 나는가네
나 간다고 설워말고

---

37) 김재홍(남, 75세,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살았다고 좋아들마소
어어허하
인제가면 언제오나
오면은 날이나 일러주소
어어허아 어하
부모찾아 가버리고
북망산천을 돌아가면
두견으로 벗을삼고
송백으로 윰을하여
어어허하 어하

## 상여소리 9

에헤이 에허
오늘가면 언제오나
어허이 어허
누굴마다고 가시는가
어허이 어허
내년이대 춘삼월에
어허이 어허
어허이 어허
꽃가마에 가시는 님은
어허이 어허
세상마다고 잠드셨네.

## 상여소리 10

세상천지 만물중에
삼람밖에 또있는가

오- 호오- 오에- 헤이 오-호
아버님전 뼈를빌어
어머님전 살을빌어
오- 호오- 오에- 헤이 오-호
이세상에 생겨나서
한오백년 살쟀더니
오- 호오- 오에- 헤이 오-호
무모은공 못다갚고
이세상을 이별하니
오- 호오- 오에- 헤이 오-호
오늘날은 황천길로
나홀로 돌아가네
오- 호오- 오에- 헤이 오-호
죽장망해 단포대로
천리강산 들어가니
오- 호오- 오에- 헤이 오-호
산은높고 골은깊어
두견접동이 난잡히 우네
오- 호오- 오에- 헤이 오-호
슬프도다 우리인생
어찌하여 이곳왔나
오- 호오- 오에- 헤이 오-호

### 장승노래

천황은 목덕으로 왕을하고
어떤나무 팔자좋아
대명왕 대들보되어
오색단청 그려있고

석산에 오동나무는
거문고 바탕되어
남풍에 화답할제
우리같은 놈은
되지못한 목수가
깍고깍어
붓것입니다 하였으니
손이있으니 무찌르나
발이있으니 도망하나
본골사도 도읍시에
장업불배 하노니
속히 방송하소서

## 山神노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삼마도지 말마도지
아홉고지 대시랭
이음산의 산실영님
못오시고 뻣뻣

## 고사소리 1

시화연풍 국태민안
법률전파 한양이씨
등국후에 봉학넌지
생겼구나.
봉의머리 터를닦고
할을늘러 대궐짓고

대궐밖에 육로로다
육조밖에 영문이요
영문밖에 통역사요.
통역사 밭에
만주제신을 마련하고
그것저것 다 버리고
우리조선 소국요
대국은 대한국이요
남손마마가 나오실때
몇분이나 나오셨나
시문시분이 나오시다
육십분이 뚝떨어져
대한국으로 명기물목
받으로 갑시다
십이제국에 열두나라
조종을 받으러 당기시던
삼사신령이 나오실때
앞으로 잡아라 열두바다
스물네 강을 건느실 때
무슨배를 잡아탔나
나무배를 잡아타니
가라앉고 토산모와타니
서리광풍 못이겨서
머리솔솔 뚜러지고
장집에 무여지고
저톱배 푹석우서라
아서라 이배 못타겠다.
독배풍덩 가라앉고
아서라 이배 못타겠다

앵무공산 썩드러가
연잎댓잎을 주루루훑어
연잎새 모아타고
청개층게를 받으렵시고
먼지바람 진설풍에
미긱미끽 건너올 때
경상도에도 충청도에도
오십삼란 공주같은
대모란 이딴하랏예산
이동네는 내동네
건국어명은 이씨댁으로
밤이타면 불이밝고
낮이되면 물이 맑고
청홍개같이 낡아
그도 그러하다만은
건국언명은 부인마님
장남에 서방님
중남에 도련님
옥동같은 귀한아기
서해바다 물밑듯이
서해바다 비둑두듯
도련님 신수좋다
고은언존 분수정히하고
감태같은 검은머리
슬슬츨저비켜 궁토람기
저란을 들러 서부정성덕
잡아메고 일자몇날
쌍코배기 한산세못

청포도에 도련님치장 좋다만은
너구치장을 세되보라
나구삼간을 써드러간다
에헤이요.
괭꽹꽹꽹꽹(꽹과리 소리)——

## 고사소리 2

국태민안 시화풍년
연년이 돌아든다
이씨 한양에 등극시절
백악산 넌짓 생겼구나
백악신 눌러 대궐 짓고
대궐앞에 육조로다
육조 앞에 오위영
문하 각산은 각도 각읍 마련인데
왕심산 청룡이요
둥기재 만리재 백호로다
관악산이 비쳤으니
한강수 수구막고
종남산 안산이요
사산을 둘렀으니
원하는 금요초라
해동조선국의 경기는 경성내요
삼십칠관이 분명한데
충청도 내달아
오십삼관의 거주로다
공주같은 영문도

청주같은 평양도
홍주같은 대모관
해미같은 영장도
물많다 서산이요
쟁이유세 예산이요
예 아니도 청양이라
○○면 ○○동
이댁에 거주 잡아라
건명에 ○○씨댁
또 곤명에 ○○씨
부인마마 수백만년
내려가니 거부장자 좋을씨고……
그는 그려하려니와
건명 ○○씨댁
작년같은 해우년은
꿈결같이 보냈거니
신년 새로 잡아들어
달결이 세다하니
달풀이나 하고가자
정칠월 이팔월
삼구월 사시월
오동지달 육섣달
하고도 정월이라
드는 액은 이월 한식이 막아내고
이월이라 드는액은
삼월삼질 제비 등으로 밀어내고
삼월이라 드는액은
사월초파일 관등불로 막아내고

사월이라 드는액은
오월단오에 추천줄로
휘휘 칭칭 감아내고
오월이라 드는액은
유월유두로 막아내고
유월이라 드는액은
칠월칠석 "까치" 등에
실려보내고
칠월이라 드는액은
팔월한가위날 오려송편
많이쩌서
대접 끝으로 몰아 내고
팔월이라 드는액은
구월구일로 막아내고
구월이라 드는액은
시월상달로 막아내고
시월이라 드는액은
동짓날 팥죽으로 쫓아내고
동짓달이라 드는액은
섣달그믐날 무시루떡
많이 쪄 술 한잔 부어서
꽝쇠채로 직은 직은 눌러내고……

그는 그러하려니와
건명 ○○씨댁
집안 회살을 풀어보자
마루대청에 성줏살
장독간에는 고두랫살
방앗간에는 디딤살

방안으로 잡어들어
홧대 밑에 넝맛살
고비간은 수짓살
부자간은 호짓살
내외간은 그는살
형제간은 우앳살
부엌삼간 잡아들어
팔만사천 제주왕
아궁이는 금덕귀신
굴뚝에는 그름대장군
살강밑에는 땡그랭각씨
수채구멍에는 흘린각씨
이런 액살 휘 몰아다가
고사반에 토액하여
원강천리 수멸하고……
그는 그러하려니와
건명 ○○씨댁에 없는 아기
생남발원 있은아기
수명 발원 그아기 점점 자라날제
어찌 자랐는고
무량도화로 자랐고나
아침이슬 오이크듯 가지크듯
여름장마 비 퍼붓듯
칠팔월에 목화송이 피듯
용문산에 안개 솟아나듯
수만산에 구름 피어나듯
뭉게뭉게 자랐고나
그 아기 자라나서
문신이면 글공부

호반이면 활공부
호국역살 세다하니
호국역살 풀고가자
강남은 대한국 우리나라 소한국
십이제국에 열두나라
조공 받으러 다니시는
손님마마 쉬훈네분이
나오실 때 조선국 적단말
바람풍편에 넌짓듣고
쉬훈분은 뚝 떠러져서
청산적국에 회정하고
다만 네분이 나오시는데
어떤손님 나오시나
글 잘하는 문신손님
활잘 쏘는 호반손님
말 잘하는 구변손님
작으나 적으나 녹두손님
다만 네 분이 나오시네
의주 압록강 다다르니
앞이막혀 건너올길 전혀없어
도사공아 배 한척을
빌려주자고나
일이천석 실은 배는
아침저녁에 다 뜨고
나무배를 잡아타니
나무배는 삭어지고
독배를 잡아타니
독배는 가라앉고
흙토선을 잡아타니

모진광풍 못이겨
아주풍덩 헤여지도다
아서라 이것 구만두어라
네 배 아니면 나 못가랴
앵무공작 넘나드는
버들잎을 주르르 훑어
연엽선을 모아타고
순풍에 돛을달아
어걱지걱 건너볼세라
경기도 치달아
궁하고 아랫대궐
윗대궐 경복궁
새대궐 귀업신
왕자아기 공주아기
금과 봉록을 듬북 돋아주고
가자가자 가자서라
충청도로 내려와서
건명 ○○씨댁
바깥마당에 선진치고
뒷마당에 후진치고
하루이틀 아기머리
집허 사흘 나흘에
도들머리 닷새 엿새
불을머리 이레 여드레
검을머리 열사흘에
검딱지 아주 훌떡 베껴메니
예주검상에 부인마마
머리목욕 정히하고
비느이다 비느이다

칠성님전 비느이다
입은 덕도 많거니와
새로 새덕을 입어지라고
칠성님전 비느이다
명을 주면 복이 없이 살고
복을 주면 명이 없으니
명과 복을 많이타서
수명장수 부귀공명 누리고저
그런경사 또 있으랴
그 아기 자라나서
천자를 떼고 동문선습을 읽고서
농어 맹자 대학 중용 그리고
시전 서전 춘추 좌전 주역까지
다 읽고보니 나라 태평하여
만과를 보인단 말을
바람풍편에 넌짓 듣고
노자불러 분부하여
서산나귀 솔질하여
가진 안장 지어놓고
도련님 치레하니
삼딴같은 좋은머리
반달같은 월여소로
솰솰 네려빗껴
전반같이 따내리고
궁초갑사 서광물려
맵씨있게 댕기드리고
물명주 접바지 삼팔주
두루막이를 입으시고
외씨 같은 삼승버선

맵씨있게 신으시고
말에 선듯 올라 타
하루 이틀 상경하여
남대문안에 드러가니
팔도선비 다 모였다
파제를 보니 봄춘자 바람풍자
다만 "춘풍"이 걸렸고나
용연에 먹을갈고
일필휘지 선장하니
시관이 받아보고
어허 그 글 참 잘지었구나
글자마다 비점이요
구절마다 관주로다
한림학사 제수하니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어사주 삼배를 마신후에
가자가자 가자세라
본댁으로 내려가자
앞에는 아해광대
뒤에는 어른광대
사령홍패 백패를 짊어지고
본댁으로 내려와서
닫은문을 바쳐 열으니
예주금상 부인마마
버선발로 나오시며
어허 우리 아들
과거급제했네
고사당 문 열어놓고
신사당 문 열어놓고

고사당에 홍패드리고
신사당에 백패드려……

그는 그러하려니와
건명 ○○씨댁에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
농사한철 지어보자
어떤 전답을 골랐는가
앞들 뒷들에 수답 건답 즐비한데
먼 - 전답 남을주고
가까운 전답 농사짓고
어떤벼씨 골랐는가
아래윗녁 진상벼
여주이천 정근벼
적게먹어 등트기벼
많이먹어 배트기벼
고루고루 심고
어떤찰을 심으시나
어전에 사모찰
두렁넘어 우렁찰
혼자먹어 도야지찰
여러가지 가꾸고
어떤잡태 심으시나
만리타국 강남콩
울콩졸콩 청대콩
이팔청춘 푸른콩
방정맞다 주눈절콩
이것저것 심고
어떤 양념 심으시나

참깨 들깨 호박 고추
가지가지 심어 놓으니
사해용왕이 물을주고
낮이면 양지쐬고
밤이면 이슬맞아
오극조극 장대하여
한길이나 넌짓 되었네
칠팔월에 동내방내
선머슴이 모주잔이나
마신 짐에 한길이나
넘는 벼를 왓싹왓싹 베어나가
이 논두렁에 걸쳐놓고
저 논두렁에 걸쳐놓아
앵무같은 한님네
똥아리 받쳐 이어드리고
물배같은 아해머슴
지게 받쳐 저드린다
아서라 이것 못쓰겠다
소를 좀 세여보세
안쪽치기 밖쪽치기
비울백이 노구거리
꽁지 없는 댕강소
그 중에 암소 수소를 세워놓고
나갈적에는 비는 발
들어올적에는 찬발
우걱지걱 실어다가
앞도노적 뒤도노적
노적산을 담불 담불 싸놓으니
난데없는 부엉덕새

노적봉에 새끼를 쳐
그 새끼 점점 자라나서
한날개를 툭탁 치니
이리로 천석이 쏟아지고
또 한날개를 툭탁치니
저리로 만석이 쏟아지고……

그는 그러하려니와
건명 ○○씨댁
초가성주 모셨으나
와가성주 모셔보자
집터를 들어보니
청룡 백호가 뚜렸하여
자손만대 할것이요
노적봉이 비쳤으니
거부장자 날것이요
문필봉이 비쳤으니
대대문장 날것이요
일산봉이 비쳤으니
각읍수령 나겠구나
닭을기르면 봉황이되고
개를기르면 네눈백이
청쌉쌀이 호박개가되고
노적봉을 바라보고
컹컹 짓는 소리
오는 앙귀 알러가고
만고복덕이 떠들어 온다
이 댁에는 뒤것에
칠성단을 모아놓고

칠성당 앞에는
장독대를 모으고
장독대 앞에는 벌통을 놓고
벌통 앞에는 더덕을 심어
아침저녁에 되는라고
그저 더덕더덕
이러 납니다 나-희로다
오-희로다 오-희로다





# 5. 타 령

광대의 판소리나 잡가의 총칭을 타령이라 하는데 '방아타령' '박타령' '돈타령' 등의 타령처럼 잡가나 민요의 곡명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굿에서 제석거리에서 부르면 '제석타령' 대감거리에서 부르면 '대감타령' 창부거리에서 부르면 '창부타령'이라 한다. 이와 같은 타령은 다른 종류의 무가와 구별하기 위해 타령 또는 타령무가라 한다. 타령은 늦은 장단의 노래는 경쾌하고 화창하며, 볶는타령은 빠르고 경쾌하고 흥겹다.

**범벅타령 1**

어리여둥둥 범벅이야,
둥글둥글 범벅이야.
누가잡술 범벅인가,
김도령잡술 범벅이야.
이도령은 멥쌀범벅,
김도령은 찹쌀범벅.

이도령은 본낭군이요,
김도령은 후낭군이요.
계집년의 행실알고,
외방장사나 간다고
민빗참빗 쪽개를 사가지고
뒷동산으로 올라가
엿만보고서 날아든다.
게집년의 행실봐라
이동령 없는 싹을 알고
김도령 올때를 기다린다.
여보세요, 벗님네야
내가 왔으니 문을여오.
계집년의 거동봐라.
김도령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중나와 얼사안고
방으로 들어가서
처어다보니 소라반자
내려다보니 되배장판.
홍공단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굽실굽실 잘도논다.

이월에는 시래기범벅,
삼월에는 쑥범벅.
사월에는 느티범벅,
오월에는 수리치범벅.
유월에는 밀범벅,
칠월에는 수수범벅.
팔월에는 꿀범벅.

## 범벅타령 2

쿵더쿵덩 찧는방아
헤헤야 둥글 범벅이야
누구잡수실 범벅이야
이도령잡수실 범벅인가
김도령잡수실 범벅이지.
멥쌀범벅 찹쌀범벅
이월에는 시라기범벅
삼월에는 쑥범벅
사월에는 느티범벅
오월에는 수리치범벅
유월에는 밀범벅
칠월에는 수리범벅
팔월에는 꿀떡범벅
구월에는 구일이범벅
시월에는 무시루범벅
동지달에는 팥죽범벅
섣달에는 흰떡범벅
정월에는 달떡범벅
열두가지 범벅을 빚어
굼실굼실 잘도 논다.
이도령은 본낭군이요
김도령은 후실낭군
이도령의 거둥을 봐라
계집년행실이 그른줄알고
외방장사를 나간다고
어린빗 참빗 쪽찌개여
어린빗을 사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엿만보고 때만본다.
계집년의 거동봐라
이도령없을 싹을 안고
김도령을 때만 기다린다
김도령이 거동을 봐라
이도령이 없는 때를 타서
산을 넘고 물을건너
이도령집 찾아와서
문열어라 문열어라
계집년 거동을 봐라
김도령 목소리 알아듣고
육간대청 초랑치마를
뒤지로하여 안된다기에
뒤지를 실으러 들어왔네
계집년이 하는말이
북바위접답은 그하나요
세전지 그물은 그한난데
화장불사가 웬말이요
이도령이 하는말이
아닌밤중에 들어와서
그많은일 용서하라
새끼바로 뒤지를 엮어
짊어지고 분만산천 올라갈 때
오륰일에 닥쳤는데
호박굴렝이가 들었는지
둥글둥글잘도간다.
북만산천을 올라가서
뒤지문을 열고보니

새빨간몸뎅이가 앉았네
이도령이 하는말이
너도남의집 아들이요
나도 남의집 귀동잔데
너죽일때가 왜있으리
계집년이 행실이 글른것인데
널랑은 갈데로 가거라
빈뒤지에 불을 놓고
집으로 들어갈제
계집년이 거동봐라
김도령이 죽은줄알고
사모제 지내러올라와서
애고대고 설안지고
살았을때는 범벅도 좋아하드니
나를두고 어델갔나
혼이 있거든 희망을 하고
혼이있거든 따라가
눈물흘려한강수되고
한숨은 쉬여 동남풍되고
이내서름 어찌하리
죽자하니 청춘이요
살자하니 고생일세
아이고대고 설안지고
이내설은 어이하리
이도령이 엿을보고
성큼성큼 내려와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엎어놓고 목을따려
잣쳐놓고 배를따려

계집년이 하는말이
당신이 살면 몇천년이요
내가살면 몇백년이요
정말좋으면 그만이지
아소마오 그리마오
사람죽는줄 왜모르나
기러기 훨훨 따나라가니
김도령소식을 뉘라전하리요
데려가오 에려가오
김도령 날데려가오
수심은 첩첩한데
잠을자야 꿈을꾸지
꿈을꾸어야 임을보지.

**베틀 타령**38)

오-날날이 하심심하아니
베틀가노래나 불러나보세
에-에이어아어아 산아니라고나
베틀을노-오-오옷세
베틀 노-오-오옷세
하늘에올라가 베틀을노오옷세
에-에이어아어아 산아니라고나
잉아를 거어언다
에-에이어아어아 산아니라고나
베틀개트으-으-으른
오동나무요

---

38) 한계숙(여, 75, 청양군 남양면 매곡1리)

안질개-는 벽오동나무으을세
에-에이어아어아 산아니라고나
아-가아-가 우우지를마으라
통비단짜는데 구경을가아자
에-에이어아어아 산아니라고나

## 화초노래

(오동추)
오동동 추야에
달이동동 밝은데
님이동동 생각이
새로동동 나누나
알뜰이 살뜰이
그리든 사랑을
얼마나 보며는
싫도록 불까나
창밖에 오는비
산란도 하더니
비 끝에 솟은달
유정도 하고나
무정도 하고나
날날이 세상이
야속도 하고나
님의동동 생각이
돌이동동 나누나
유정무정은 정들은탓이요
정들고 못살긴좋다
화류장 남녀라

## 홍이 나면 부르던 소리[39]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창문을 뚫고 비치는 달빛
가슴을 뚫고 파고드는 사랑
잊으라 하여도 못 잊지요
가고자 하여도 아니될세
사랑이라니 무엇이드냐
이것이 사랑의 근본이라
얼씨구 얼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풀고는 못하리라
사랑 사랑 사랑이라니
알다가도 모를 사랑
이 사랑 저 사람 다 저쳐놓고
너만이 알고 나만이 알고
단 둘이만 알고서 한 사랑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아니 놀고는 못하리라

## 홍타령[40]

천안삼거리
능슈버들은
제멋에 겨워
척느러젓네
세월아네월아

---

39) 김을수(남, 69세,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40) 김홍일(남, 87세,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네가덧없이
가지말에라
우리같은 건달덜
다능넌다

## 난봉가 1

난봉이났네 난봉이났네
과부집외아들 실난봉이났네
조부님산소에 화산이빛어
우리삼동세 또난봉이났네
길라레비훨훨 다날아가고
주렴아주렴아 내사랑아
거적문안에 보리쌀이는
큰아기이남박 장단에
웅덩이 춤춘다

## 난봉가 2

난봉이 났네
난봉이 났네
남의집 귀동자
또난봉이 났네
에야에야 에헤야
돈닷돈 바라고
보리밭에 들어갔더니
물명지단 속것다젖었네
에야에야 에헤야
총각낭군 오실줄알고

북어를 찐다는게
쇠말뚝을 찌고
계란을 찐다는게
북어를 찌고
전북을 낸다는게
달걀 냈더라

## 각설이타령 1

엘시구나 잘한다.
품파하고 입한다.
昨年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왔네.
으놈이 늠이 이래도
정승판사 자제요
팔도감사 마다고
돈한푼에 팔려서
각설이로만 나섰네.
지리구지리구 잘한다.
품파하고 잘한다.
네선생이 누군지
남보다도 잘한다.
시전서전을 읽었는지
유식하게도 잘한다.
논어 맹자를 읽었는지
대문대문 잘한다.
냉수등이나 먹었는지
시연시연 잘한다.
뜨물등이나 먹었는지

걸직걸직 잘한다.
기름동이 먹었는지
미끈미끈 잘한다.
대목장을 못보면
겨울살이 벗느냐
지리구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고 잘한다.
앉은고리 동고리
선고리 문고리
띄는고리는 개고리
나는고리는 꾀꼬리
이은고리는 저고리
지리고지리고 잘한다.
한발갖인 깍귀
두발갖인 까마귀
세발갖인 당나귀
먹는귀는 아귀라
지리구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고 잘한다.
일자 한자 듣고보니
일편먹은 마음
죽으면죽었지 못잊겠네.
이자한자 듣고보니
수중백노 쥬어백구
뺄날라든다.
삼자한자 들고보니
삼월이라 삼짇날에
제비나한쌍 날아든다.

사자한자 들고보니
사월이라 초파일
오월이라 단오날에
처녀총각이 한데모여
주천놀이가 좋을시고
육자한자 들고보니
유월이라 유두날에
탁주놀이가 좋을시고
칠자한자나 들고보니
칠월이라 칠성날에
견우직녀가 좋을시고
팔자한자나 들고보니
팔월이라 가배날에
오려송편이 좋을시고
구자한자 들고보니
구월이라 구일날에
국화주가 좋을시고
십자한자 들고니
시월라 무오날에
고사사당이 좋을시고
백자한자 들고보니
백만장안 억만가에
태평가 좋을시고
만자한자 들고보니
억조창생 백성들이
함포고복 좋을시고
지리구지리구 잘한다.

## 각설이 타령 2

어헐시구 자리한다
품바하고 자리한다
작년의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왔네
으흐 이놈이 이래도
정승판서 자제요
팔도감사마다고
돈한푼에 팔려서
방으로 들어가서
쳐다보니 소라반자
내려다보니 각장판
시간절해서 더욱 좋다마는
자기항루 반다지에
백기석이 들어입고
모란병풍 둘러치고
샛별같은 솟요강을
발치발치 벌려놓고
홍공단 이불을 펼쳐놓고
원황금침 잣베게가
두몸이 한몸되어
둥글둥글 잘도잔다
창포밭에 금잉어놀듯
둥실둥실 잘도논다
계집년이 하는말이
시장두나 하실텐데
무엇을 잡수시리오
품바하고도 잘한다

품바품바 자리한다
각설이로만 나섰네
지리구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고 잘한다
네선생이 누인지
남보다도 잘한다
시전서전을 읽었는지
유식하게도 잘한다
논어맹자를 읽었는지
대문대문 잘한다
냉수동이나 먹었는지
시연시연 잘한다
뜨물동이나 먹었는지
미끈미끈 잘한다
대목장을 못보면
겨울살이 벗느냐
지리구지리구 잘한다
잘잘끌고 내려온다
중문을열고 대문을열고
선수복수 이끌어잡고
대문닫고 중문닫고
앉은고리는 동고리
선고리는 문고리
띄는고리는 개고리
나는고리는 꾀꼬리
입는고리는 저고리
지리고리지고 잘한다
품바하고잘한다

한발갖은 깍귀
두발가진 까마귀
세발갖은 통노귀
네발갖인 당나귀
먹는귀는 아귀라
지리구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고 잘한다
일자한자 듣고보니
일편먹은 마음
죽으면죽었지 못잊겠네
이자한자 듣고보니
수중백노쥬어 백구 뺄날라든다
삼자한자 듣고보니
삼월이라 삼짇날에
제비한쌍 날아들다
사월이라 초팔일에
등불도나 밝고나
오자한자 듣고보니
오월이라 단오날에
처녀총각이 한데모여
추천놀이가 좋을시고
육자한자 듣고보니
유월이라 유두날에
탁주놀이가 좋을시고
칠자한자 듣고보니
칠월이라 칠석날에
견우직녀가 좋을시고
팔자한자를 듣고보니

팔월이라 가배날에
오려송편이 좋을시고
구자한자 듣고보니
구월이라 구일날에
국화주가 좋을시고
십자한자 듣고보니
십월이라 무오날에
고사사당이 좋을시고
백자한자 듣고보니
백만장자억만가에
태평가 좋을시고
만자한자 들고보니
억조창생 백성들이
함포고복 좋을시고
지리구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고 잘리한다

## 성주풀이

녹음방초 성하시에
해는어이 쉬어가노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할까
일촌간장 맺힌설음
부모님 생각뿐이로다 에라만수
이넋이 뉘넋이냐
동북간 지여내니

왕소꾼의 넋도아니요
공양미 삼백석에
어둔눈이 뜨단말가
심낭자의 넋이로다 에라만수
천리강산 망혜신고
죽장짚고 들어가니
폭포도 좋거니와
여산이 여기로다
비류직하 삼천석은
옛말삼아 들였으니
의식은하 낙구천은
과연허언이 아니로다 에라만수
쳐다보니 만확천봉
내려굽어 살피니 백사지로다
허리굽고 늙은장승
광풍을 못이기어 우졸우졸
춤만춘다 에라만수
낙양산 십리하에
높고낮은 저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냐
우리인생 한번가면
저기저모양 되리로다 에라만수

**총각타령**

머리머리 밭머리에
돔부따는 저 큰애기
머리 끝에 디린댕기

공단인가 대단인가
공얼카덩어리단이건 나
좀주게 뭐할라고 달라는가
망근망근 귀여쓰고
자네집에 장가감세
장갈랑은 오소마는 눈비올 때
오지말게
우산갓모 걸데없네
갓모랑은 깔고자고
우산일랑 덥고자세.

## 닐닐이 타령[41]

닐니리야 닐니리야
니니노당실로
내가들어간다 닐닐닐니리야
닐닐니리야 닐니리야
니나노야 닐니리야
청사초롱에 불밝혀라
닐닐니리야
닐니리야 닐니리야
니나노당실로
내가들어간다 닐닐닐니리야
닐니리야 닐니리야
니나노당실로
내가들어간다
왜왔던가 왜왔던가
닐닐닐니리야

---

41) 한계숙(여, 75, 청양군 남양면 매곡1리)

닐니리야 닐니리야 이겼던
낭군이 다시 돌아온다
닐닐닐니리야 니나노당실로
내가들어간다 닐닐닐니리야

이동네는 내동네
전국어명은 이씨댁으로
밤이타면 불이밝고
낮이되면 물이밝고
청홍개같이 낡아
그도 그러하다만은
건국언명은 부인마님
장남에 서방님
중남에 도련님
옥동같은 귀한아기
서해바다 물빌 듯이
서해바다 비둑두둣
도련님 신수좋다.
고은언존 분수정히하고
감태같은 검은머리
슬슬출저비켜 궁토람기
저란을 둘러 서부정성덕
잡아메고 일자몇날
쌍코배기 한산세모시
청포도에 도련님치장좋다마는
너구치장을 세되보라.
나구삼간을 쓰드러간다.
에헤이요 괭괭괭괭괭……

## 청춘가

청천하늘에 잔별도 많고요
이내가슴에 수심도 많고나.
우연한 저달이 창밖에 빛어서
산난한 내가슴 더 산란케
하노라.
산중에 귀물은 머루와 다래인데
인간의 귀물은 너하나 뿐이다.
언제는 살자고 사랑애자 쓰더니
언제는 이별이라고
내천자 쓰느냐.
종달새 울거든 봄이온줄 알고요
하모니카 불거든 임이온줄
알러라.
일본대관이 얼마나 좋아서
꽃같은 날두고 연락선 타느냐.
임찾으러 갈려고 빗었던 머리는
동남풍 부러서 껄이러 나꾸나.
껄이러난머리 다듬어 가지고
남산공원에 좋다 산보를 갈까나.
칠갑산공원에 철쭉꽃피고요
날만보면 좋다 벙글벙글 웃노라.
기암절벽에 뚝떨어져도 사는데
좋다 임떨어지구는
나못살겠구나.
날여워주세요 날여워주세요
농우소팔아서 좋다
날시집보내주세요

사랑이 중하더냐 금전이
중하더냐
두가지놓고서 좋다 골라만
잡아라
사랑이 좋거든 나를 따라
오구요
금전이 좋거든 돈벼락 맞어라.
천안삼거리 능수야버들은
제멋에 지쳐서 좋구나
척늘어졌느냐.
너잘났다고 뽐내지 말어라
내눈이 어두워 좋다
환장이로구나.
구봉산중턱에 허리안개
둘러안고
넓은 들판 곡식은 좋다
황금물결치네
배타고간다고 맘불안한데
저여리 소쩍새는
얼시구나 왜그리우느냐.
돌려라 돌려라
비비뱅뱅돌려라
청춘가 끝내고 좋다
딴노래 불러라.

## 고사리타령

고사리고사리 요몰쓸 고사리
너를 깎으러 여기왔든

님을 만나러 여기왔지.
일락서산 지는해에
님아오는 분푸리로
애꾸진 고사리만
목을 비틀어 깎는다네
고사리고사리 얄미운 고사리
하도 날때가 없기로소니
바위틈에가 돋았느냐.
시집살이 고생살이
핑계가 좋은 고사리를
죄없는 고사리만
목을 비틀어 꺾는다네.
고사리고사리 얄미운 고사리
우리낭군은 어데로 가고
너만 혼자서 피었느냐.
오마하고 않오는 우리님
원망을 해가면서
애꾸진 고사리만
목을 배틀어 꺾는다네.

## 어랑타령

신고산의 우루루
화물차떠나는 소리
고무공장 큰애기
변도밥만싸노라
어랑어랑어허랑 어허난다
디어라 네가내사랑아
떴다소리개 한쌍뜨자

병아리 간곡 없구요
자동차 기차가 떠나자
정든님간곳없네
어랑어랑어허야 어허난다디어라
네가내사랑아 어랑타령이
본적은 함경도원산인데
새머리본정통은 명동거리로다
어랑어랑 어허랑
어허야디어라 내사랑아
섣달이라 그믐날
시집이체컷을 갔는데
정월이라 초하룻날
계집애 쌍둥이 났구나
어랑어랑어허랑
어허난다디어라 내사랑아
앵두나무밑에서
병어라한쌍은 노는데
우리영감생신때 술안주감이로다
어랑어랑어허랑
어허난다디어라 내사랑아
옥양목중의 적삼은
첫물이 좋구요
처녀와 총각은 첫날밤에 좋다네
어랑어랑어허야
어허난다디어라 내사랑아
네가먼저살자고 옆구레
꾹꾹 찔렀지
내가먼저살자고 계약의 도장을

찍었나 어랑어랑 어허랑
어허난다디어라 내사랑아
청진물이 합하여
수력전기가되고요
너와내가 합하여
정든탑을 세웠네
어랑어랑 어허랑
어허난다디어라 내사랑아
삼수갑산에 딱따구리는
생구멍도 잘 뚫는데
우리집의 멍텅구리는 뚫어진
구명도 못뚫는다
어랑어랑 어허랑
어허난다디어라 내사랑아
어스렁달밤에 청개구리울고
심심산부엉이소리
일천간장을 녹인다
어랑어랑 어허랑
어허난다 니어라 내사랑아
만국재판을하여도
너와나의 사랑은
네말한마디에 달렸단다
어랑어랑 어허랑
어허난다디어라 내사랑아

## 아리랑타령 1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와요
이강산 삼천리에 풍년이와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진다고 서러마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뒷동산 갈대잎은
칼춤만추고요
집나간 낭군님은 소식도없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담넘어 갈때는 큰마음먹고
문꼬리 잡고서 발발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고요
이내 가슴에는 수심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동백아 열지마라

산꼴에 큰애기들 떼난봉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떡일랑 받아서 옆에놓고
요내손목 잡고서 하소연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정든님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빵긋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고개서 살게되면
너하고 나하고 집을짓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시아버지 죽었다고 춤추었더니
왕굴자리 떨어지니 생각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시어머니 죽었다고 춤추었더니
보리방아 물붜놓은게 생각나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남의집에 낭군은 자동차타고
우리집낭군은 밭고랑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지느냐
우리네 청춘은 늙고싶어 늙는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청사초롱에 불밝혀라
죽었던 낭군이 돌아온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청천수월 밝은달에
정든님 생각이 절로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산천이 고와서 내가여기 왔느냐
임계신 곳이라서 내가여기
왔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자고가게 놀고가게 정들려놓고
간데마다 이별잦아 나못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천지간 무정키는 세월밖에
또 있는가
홍안이 어제드니 백발인가

## 아리랑타령 2

간대야 쪽쪽 정드려놓고
이별이 자자서 못살겠네

산골작 큰애기 베짜는소리
약복쟁이 하이카라 발맞춰간다

## 아리랑타령 3

아리랑
아리랑타령을 중잘하면
도련임소식을 뉘가들지
실일 리가 간뒤온딕
이고야 졍뒤려노코
이별이 자져서
나못살건노라
부모임 입ㄹ은
이고야 눈물나난듸
졍임이별은
하늘리 빙빙도노라

## 아리랑타령 4

비내려주게 아리랑고개다
술막을 짓고
정든임오식를 고대고대한다.
명사십리에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서러마라..
뒷동산 갈대잎은 칼춤만추고
일선에 가신낭군 소식도없네.
청사초롱에 불밝혀라
죽을 낭군이 돌아온다.

떡일랑 받아서 옆에놓고
요내손목 잡고 하소연하네.
울넘어 달넘어 꼴비는 총각
눈치나 있거든 떡받아먹게.
정든님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물고 입만뻥긋.
떡을 받아서 동뎅이치고
손목을 잡고서 발발떠네.
아주까리 동백아 열지마라
산골에 큰애기 떼난봉난다.
우리어매는 날키울라말고
칠월 삼배나 나았으면
몽당치마 연할 것을.

## 아리랑타령 5

공주금강상 높은행길
큰애기 등쌀에
남의집 귀동자 다죽여 낸다.
아리랑 아리랑 배밀어 주게

말은 가자고 네굽을 치고
임은 불을고 낙루한다.
자고가게, 놀고가게
간데마다 정들여놓고,
이별이 잦아서나못살겠네
아리랑 아리랑 노다가세

울며 불며 잡은손목
열두번 죽어도 못놓겠네
너는 죽어서 꽃이나 되고
나는 죽어서 나비가 되어
1년1회 꽃이나 피면
나비가 올까
너는 죽어 견우나 되어
년년일도 과하래에
독승인문 거불회될까.
아리랑 아리랑 노다가세.

## 아리랑타령 6

남의집에 낭군은 자동차타고
우리집 낭군은 밭고랑타네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지며
우리네 청춘은 늙고싶어늙자.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지나
날 버리고 가는님은 가고
싶어가라.
담넘어 갈때는 큰마음먹고
문꼬리 잡고는 발발떠네.

아이고자고 통곡을 마라
죽었던 낭군이 살아올까

아리랑 고개서 살게되면
너하고 나하고 집을 짓고 살자
살게나 못되면 한강수
깊은물에 빠져나 죽자

### 아리랑타령 7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이 난다

시아버니 죽어서는 속시원터니
금전이 떨어지니 생각난다.

시어머니 죽어서는 속시원터니
보리방아 물불어 생각난다.

### 아리랑타령 8

비내려주게
아리랑 고개다 술막을짓고
정든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후렴)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를 넘어간다

노다가세 노다가세
저달이 지도록 노다가세

남산밑에 장춘단짓고

군악대 장단에 받들어총한다

세월은 덧없도다
날버리고 가는임은
가고싶어 가랴

## 토끼타령

토기화상 그린다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렀소
토끼화상을 그린다
이적선 봉황대봉
그리던 환생이
토끼화상을 그린다
화공을 불러라
불렀소
토끼화상을 그린다

오징어 불러라
오징어 먹을갈어
양요화필 담북풀어
백용성화 잔치상에
이리저리 그린다
천하명산 승지간에
경계보던 눈그리고
앵무공작 지저귈제
소리듣던 귀그리고

난초금초 따먹던
입그리고
대한 엄동설한에
강풍하던 털 그리고
방장봉내 운봉중에
펄펄뛰던 발 그리고
두귀는 쫑곳
두눈은 도리
좌편은 청산이요
우편은 녹수로다
녹수청산 깊은 골에
펄펄 뛰던 발 그리고
아미산 반욘투를
이에서 더할소냐
안이었다 별주부야
네가지고 가가서라

## 이별謠 1

인제가면 언제나오실라나
오실날이나 일러를 주게
조고만한 조약돌이
커드란 광석이 되야
서중맞거든 오실라나
대천이라 한가운데
물이말러 논치고
밭갈거든 오실라나
뒷산이 평지가되고
평지가 태산이 되거든

오실라나
평풍에 그린 황계수닭
자근목을 질게빼어
두날개를 투탁치고
울거든 오실라나
올날이나 일러주오
죽어서 영이별은 남들도
다하거니와
생의생이별
생초목이 불이 붙네
이내 눈물이 악수되면
불을 끄런마는
눈물을 흘리되 간곳없고
회오리광풍 모진 바람만이
일어난다

## 이별謠 2

만리창공의 흙운은 흩어지고
한양 십리중에 월색도 요조한데
임이 저리 다정타면
이별인들 있을소냐
이별마자 지은맹세
태산같이 믿었더니
태산이 일조에 무너지니
허망이로다
이별될줄 알았다면 아예당초
마를 것을 우연히 둘이만나
이별말고 사잤더니

정들자 이별하니
심화골수 맺힌한은
이길 가망이
전혀없네

### 노랫가락 1[42]

청천수우러 밝은달에
정든님 생각이 절로난다
도라지 캐러간다고
이핑계 저핑계하더니
총각낭군 무덤에
삼오제 지내고 있단다.
청포밭에 금잉어 논다.
이리굽실 저리굽실,
술안주 감이로다.
춘아춘아, 옥단춘아
너구나구 놀아보자.
늙어지면 못노느니
성안성내 정든님두고
월성하기가 난감하더라.

문외양유 심은듯은
郎의 말을 매잤더니
郎의 말은 속절없이가고
심상행인만 모여든다
아고 수심이로다

---

42) 한계숙(여, 75, 청양군 남양면 매곡1리)

산천이 고와서 내가
여기를 왔느냐
임계신 곳이라 내가
여기를 왔겠지
여에라듸영 에헤야 에헤이요
시여요 시여요 어룸아 지어라
내사랑

## 노랫가락 2

검은양산 흰저고리
거먹통치마 엌게곶
탁치고 돌여다보니
못갱겼네 호박일레
코쨍일레 멀정한
머리에 신작로내고
멀정한 눈갈에
유리창달고 서양요리
져부러 아드레거린다.

## 노랫가락 3

칠성님게 빌고빌어
만든자식 낳고보니
애꾸눈이 분명하다
첫날밤에 방구뀌고
서방한테 매맞은
저여자 꼴좀보소

## 노랫가락 4

천지간 무정키는
세월밖에 또있는가
홍안이 어제드니
백발이 무슨알고
지금에 죽기는 슲지않으나
늙기가 설워

존황활손 저국화는
양춘가절 다마다하고
낙목한설 찬바람에
너만홀로 피웠나니
화주의 은인이 이아니야

네루구나 다시보아도 네루구나
성튼몸 병들여 놓고
간장태우는 네로구나
지금에 다시 만났으니 만단정화

동창밖에 국화시어
국화밑에 술을빚어
국화피자 술익자
임오시자 달떠나온다
청양주이가 아아니야

황성낙일 찬바람에
울고가는 적러기

용문학관 음신란하니
북방소식 뉘전하리
빌건데 내글한장
임계신곳 전하고가요

### 노래가락 5[43]

노자 젊어서 노자
늙어지면은 못노나니
화무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우나니
인생은 일장춘몽인데
아닌놀지는 못하리라

담안에 국화를 심어
국화밑에다 술빚어놓고
술과 국화는 피자
임은 오시자 저 달이솟네
명월아 국화주 걸러라
마시름자가 원간주라

꿈아 무정한꿈아
오셨던 임을 왜보냈다
오신임 보내지말고
잠든이 내몸 깨어나주지
이후에 또다시오거든
임을 잡고서 날 깨주오

---

43) 한계숙(여, 75, 청양군 남양면 매곡1리)

하늘천 따지땅에
집우자로다 집을 짓고
날일자 영창문에다
달월자로 다 달아놓고
밤중에 임생각나거든
별진잘숙
호접접 봄나비쌍쌍
양류청산에 꾀꼬리쌍쌍 날짐승
길버러지도 짝을지어서
잘두나논다
우리는 언제나 임만나
짝을 지어서 잘살아볼까

말을가자고울고 임은
잡고서 놓지않네
석양은 재를다넘고
나의갈길은 천리로다
저임아 날잡지말고
서산에지는 해를 붙잡아매라

올려다보니 삼각산이요
내려다보니 경성시내
신용산에 뜬비행기는
경성시내를 돌건마는
우리는 검은기차타고
한강철교를 건너가네..

다하여도 삼사월만
못하리라 봉봉에 두견화요

골골마다 방화수라
아마도 놀기좋기는
춤삼월일세
녹양이 천만사인들
나는새를 어이하며
탐화봉접인들 지난꽃을
어이하랴
아무리 근원이 지중한들
가시는 임을 어이하랴

백두산석은 마도진이요
두만강수는
옴마무라 남아이십 미평국이면
국세수칭 대장부랴
아마도 이글을 지은이는
남이장군이 분명하리

## 노랫가락 6

노세 젊어놀아
늙어지면 못노느니
화무십일홍이요
달도차며 기우나니
인생 일장춘몽이라
아니놀고 무엇하리
천지간 무정키는
세월밖에 또 있는가
홍안이 어제드니
백발이 무슨일고

지금에 죽기는 슬프지않으나
늙기가 설워
존황활손 저 국화는
양춘가절 다마다하고
낙목한설 찬바람에
너만 홀로 피었나니
화중의 은은이 이 아니냐
네로구나 다시보아도
네로구나
성튼몸 병들여놓고
간장태우는 네로구나
지금에 다시 만났으니
만단정화
동창밖에 국화심어
국화밑에 술을빚어
국화피자 술익자
임오시자 달 떠나온다
청량주미가 이 아니냐

황성낙일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 기러기
용문학관 음신난하니
북방소식 뉘 전하리
벌건대 내 글 한장
임 계신곳 전하고가요

## 노랫가락 7

산천이 고와서
내가 여기를
왔느냐
임계신 곳이라
내가 여기를
왔겠지
여에라듸영 에헤야
에헤이요 시여요시여요
어룸아 지여라
내사랑

## 노랫가락 8

간밤에 꿈 좋더니만
임에게서 편지가 왔어
편지는 왔다마는
임은 어이 못오시나
편지 봉투 갯탕을 하니
만날봉자가 뚜렷하다
동자야 먹을갈어
임에게도 편지쓰자
한자쓰고 눈물흘러
두자쓰고 한숨쉬네
또 한자 쓰고보니
이별이자가 뚜렷하고나

## 양산도

에헤이여 양동맹산 흐르는물은
감돌아든다고 부벽루로다
에여라 노아라 네가 그리마러라
아까운 청춘이 다 늙어간다
에헤이어 산속에 푸른숲은
창부기생이요 학두루미는
울고가는 절세명승이라
에여라 노아리 네가그리말어라
능지를 하여도 나는 못놓겠네
에헤이어 동도리 변시초는
일촌광음이 애석하구나
아서라 마러라 네가
그리를 마러라
사람이 괄세를 네가
그리를 말어라

## 사발가

석탄백탄 타는데 연기만
퍼펑펑나고요
요내가슴 타는데 연기도
김도 안난다
에헹에헹 어허야 어여루난다
디어라 허송세월 말아라
가을바람 소슬부니 낙엽이
우수수지고요
귀뚜라미 슬피울어 남은

간장을 다녹인다
에헹에헹 어허야 어여루난다
디어라 허송세월을 말어라

## 성주풀이

낙향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대가인이 몇몇이냐
통일천하 진시왕은
아방궁을 사랑삼고
만리장성 굳게 쌓고
기철이 만년 사잤더니
사후면백 저문 날에
여성청춘 속절없다

## 춘향타령

듣주세요 듣주쎄요
서방님 잠간 듣주쎄요
내일본관사도 생신 끝에
나를 올여다 죽인다하니
아무데도 가지말고
옥문밖에 지켜섰다
나죽었다 영내리거든
아무손도 대지말고
서방님손으로 감당하야
보영당 방을치고

깔고자든 덮던이불
자는듯이 누여놓고
나를 묻어주되
전라도땅 나는 싫어
영영지결 가오리라
아니노지 못하여
아니스지 못하여







# 6. 情 謠

## 정요 1

호박이 늙으면
맛이나 좋구요.
사람은 늙으면
보기보기 다싫다고요.

## 정요 2

간다간다 나는간다.
임을 버리고 나는간다.
내가 가면 아주가나
아주 간들 잊을소냐.

## 정요 3

나는 죽어 맷돌 밀짝이 되고요.
너는 죽어 윗짝이 되어랴.
어랑어랑 어랑 내 사랑아.

## 정요 4

일내는 오시는데
공동묘지 가신낭군은

영 이별일세, 공동묘지
가신낭군은 무덤이나 있지
보령청진 가신낭군은
그림자도 구경못한다.

## 정요 5

창밖에 오는비는
산란도 하고요
비 끝에 돋는날
유정도 하고나.

## 정요 6

간다간다 나는간다
임을 버리고 나는간다
내가가면 아주가나
아주간들 잊을소냐
3월이라 삼진날에
제비만 보아도 임의생각
4월이라 초파일에
관등만보아도 임의생각
5월이라 단오날에
그네만띄어도 임의생각

6월이라 유두날에
유두울음 들으면 임의생각
7월이라 칠석날에
견우직녀성보니 임의생각
8월이라 추석날에
송편만보아도 임의생각
9월이라 시단풍에
낙엽만보아도 임의생각
10월이라 상달을 맞아
무시루떡만보아도 임의생각
11월이라 동지날에
팥죽만보아도 임의생각
12월이라 섣달에는
흰떡만보아도 임의생각
앉어생각 누워생각
임의생각만 저절로 나네

## 정요 7

어려서 글못밴죄로
술렁소리로 되며
백사장 넓고넓은데
연기를 뽑고 누었으니
밤이면 진대답소리
오내가슴 두근떨렁

## 고사리 노래

고사리 고사리 요못살 고사리
너를 꺾으러 여기왔든
님을 만나라 여기왔지
일락 서산에 지는해에
애꾸진 고사리만
목을 비트러 꺾는다네



## ❋ 조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청양군 남양면 온양리, 정일순(여, 74세, 하동 정씨, 부여군 외산면 저동에서 출생, 16세 때 온양리로 시집을 옴. 4남 1녀, 54살 때 남편 사별, 꼬댁각시 노래 가창능력 우수, 기억력 뛰어남, 매우 호의적), 2002. 7. 24, 제보자의 집, 정형호 · 류재인 조사.
- 청양군 남양면 매곡1리, 한계숙(여, 75), 2004. 8. 3, 김지연, 김진영 조사.
-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최재만(남, 78세) 2003. 7. 8, 조사자 정형호, 김승유.
-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김동순(여, 82세), 2004. 8.
-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백영현(여, 75세), 복진학씨 댁, 2004. 8. 2, 성시우, 이정은 조사.
- 청양군 목면 안심리, 권오현(남, 65세), 김재복(남, 67세), 2000년 4~8월, 이완주 조사.
- 청양군 목면 화양리, 우봉식(남, 71세), 마을입구 정자, 2004. 8. 7, 성시우, 이정은 조사.
- 청양군 목면 화양리, 우제두(남, 75세), 마을입구 정자, 2004. 8. 7, 성시우, 이정은 조사.
- 청양군 목면 화양리, 윤홍수(남, 68세), 마을입구 정자, 2004. 8. 7, 성시우, 이정은 조사.
- 청양군 목면 화양리, 우국명(남, 65세), 마을입구 정자, 2004. 8. 7, 성시우, 이정은 조사.

-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이용희(남, 73세), 2001. 7. 29, 조사자 홍정모, 김선숙.
-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덕다리, 명제임(여, 73세, 운곡면에서 태어나 비봉면으로 시집 옴), 2004. 8. 3, 임장혁, 채주희 조사.
-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이용희(남, 73세, 운곡면에서 태어남), 2004. 8. 4, 임장혁, 채주희 조사.
- 청양군 운곡면 방주골, 최병헌(남, 70세), 최병헌씨 댁, 2004. 8. 5, 성시우, 이정은 조사.
-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오영삼(남, 58세, 3대 거주, 농업, 지관, 독학으로 민간의료술 익혀 치료도 함), 하송 마을회관, 2001. 7. 24, 하송마을회관, 정형호, 이동아 조사.
-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장오재(여, 69세), 2004. 8. 2, 김지연, 김진영 조사.
-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오영범(남, 71세), 2004. 8. 2, 정형호, 임시영 조사.
-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조성구(남, 53세, 풍양 조씨, 진갑면에서 정산면으로 와서 2대째 살고 있음), 2004. 8. 2, 임장혁, 채주희 조사.
-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우종손(여, 84), 2004. 8. 2, 김지연, 김진영 조사.
-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유진영(남, 80세), 2004. 8. 4, 정형호, 임시영 조사.
-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2구, 윤정근(남, 74세), 2004. 8. 4, 정형호, 임시영 조사.
-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김홍일(남, 87세), 김홍일씨 댁, 2004. 8. 6, 성시우, 이정은 조사.
-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김재홍(남, 75세), 김재홍씨 댁, 2004. 8. 6, 성시우, 이정은 조사.
-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김을수(남, 69세, 15~16대째 살고 있음), 2004. 8. 3, 임장혁, 채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구, 김청섭(남, 44세, 고향은 운곡면, 청양읍에서 식당을 하고 있음), 2004. 8. 5, 임장혁, 채주희 조사.
- 청양군 화성면 매평리, 이필화(남, 장님으로 7살 때 부터 귀동냥으로 소

리를 배워 경쟁이를 하고 있음, 향토문화재 제 6호), 2004. 8. 4, 김지연, 김진영 조사.

- 청양군 화성면 산동리, 김기복(남, 71세), 2004. 8.
- 청양군 화성면 산동리, 홍천석(남, 80세), 마을입구, 2004. 8. 4, 성시우, 이정은 조사.
- 청양군 화성면, 산동리, 김기복(여, 86세), 마을입구, 2004. 8. 3, 성시우, 이정은 조사.

## ■ 편자 소개


**임동권** 충남 청양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저서 『한국세시풍속연구』 외 다수

**정형호** 충북 보은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연구교수
저서 『양주별산대놀이』 외 다수

**임장혁** 서울 출생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부교수
저서 『기우제의 비교민속학적 연구』 외 다수



**青陽의 民謠**

인 쇄 : 2004년 10월 25일
발 행 : 2004년 10월 30일
발행처 : 靑陽文化院(전화: 041-943-4774)
발행처 : 정 재 권(전화: 041-943-8889)
인쇄처 : 대명제책사(전화: 02-924-5049)

※ 이 책은 군비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